東亞日報
三十日夕刊
本紙八面
發行 編輯 印刷人 宋鎭禹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新聞價 廣告料

社說

大英帝國會議
─世界的影響不大─

一

大英帝國會議는 英本國、加奈陀、濠洲、뉴질랜드、南阿、愛蘭、印度、『로데시아』等 八個國代表의 參加밑에 지난 二十一日부터 加奈陀首府『오타와』에서 開催되엇다。本會議는 一九二六年及一九三〇年 英本國과 各自治領間의 不平等權을 確立한 英帝國議會以後 最初로 開催된 會議로서 後者가 英本國 對 各自治領間의 政治的要綱을 論하는 會合임에 對하야 前者는 一九三〇年의 會議에서 解決하지 못한 英本國 對 各自治領間의 經濟的要綱을 討議하자는 會合인 同時에 大英帝國의 重大한 會合일뿐 아니라 世界的不況의 今日에 世界的 關係를 가젓다 할것이다。

二

英帝國會議의 議題를 보면 (一)英帝國內의 關稅政策의 審議 即 英帝國內의 互惠關稅採用의 件(二)外國에 對한 通商貿易의 件(三)貨幣、金融、通信、交通問題에 關한 英帝國內의 協力實現方法의 審査等이다。이 議題中에는 勿論 一의 互惠關稅問題가 가장 重大하다。萬一 英本國의 主張하는 바와 갈이 英本國 對 各自治領間의 互惠關稅가 圓滿히 解決된다하면 從來 分離的傾向에 잇던 英本國 對 各自治領間의 經濟的 紐帶는 緊密해질뿐아니라 延하야 各自治領에 소輸出品의 四割以上을 英自治領에 가진 米國같은 國家의 重大한 打擊을 줄지오 그와 反對로 各自治領이 各自의 發展하기 始作한 産業을 保護한다는 意味에서 自主關稅를 主張하고 帝國內의 互惠關稅를 排斥한다 하건대 英本國과 自治領間에는 經濟的 紐帶가 더욱 弛緩해질지오 延하야는 政治的 紐帶까지 乃至 米國其他關係各國에 影響이 적을것이다。

三

그런데 從前의 會議의 經過를 보면 豫想한바와 갈이 會議席上에 잇서서 英國側은 急進的으로 進出하는것같지 안다。『英帝國特惠制度는 帝國內의 關稅를 低下할지 或은 外國에 對한 關稅를 引上함에 依하야 實現하야되겟는데 一般國內의 繁榮이 업시 英帝國의 繁榮을 期하기 不能함에 依하야 特惠制度는 可及的 後者를 避하고 前者에 依하야 實現되리라』說하야 特惠關稅를 高調하는 一方 世界經濟의 恢復을 論한것이나 카나다首相베넷트가 『(一)英國品直接輸入의 範圍를 擴張함 (二)英國品에 對한 現行特惠를 維持함 (三)카나다産業을 害하지 안는 特定英國品에 對한 特惠를 擴張하라』고 하고 連하야 『英國側에서 加工品에 對한 特惠의 有効한 擴張을 하라』고 要求하야 依然 自國의 産業保護를 主張하면서 英本國과의 互惠를 謀하라한것으로 그他自治領代表의 陳述한 바를 보지 안아도 淸問의 消息을 窺知할수잇다。오즉 例外로서 愛蘭自由國이 何等發言을 아니엇는바 이는 愛蘭共和黨執政以來 愛蘭의 政治的理由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英國이 萬一 大利益을 犧牲한다

四

勿論 會議는 途中에 잇고 어느 標準까지 協力하야 하는것이 오 英帝國會議는 英本國及 自治領間 多少의 妥協한 紐帶를 갓게되고 英帝國 對 外國間에 競爭의 氣運을 좀더 促進할 機會가 아니라 그 세 時代的으로 不等權을 연 危機를 지은 英本國及 自治領間의 反感이 殖民地의 利益을 뒤에 두고 結果에 到達할지 未 知이나 加奈陀首相의 聲明과 갈이 自治領의 産業을 害치 아니할 程度로 特惠制度를 與할지며 그 推移를 ……。 英帝國의 經濟的으로 關係가 밀접한 米國이 願하는 그대로는 가지 못할것이다。그럼으로 本大會議는 保護關稅를 設한 英本國이 最近의 經濟的으로 關係없는 一部分을 除外하고는 米國의 願하는 바와 같이 保護關稅를 撤廢할 만한 解決은 될 수 업슬것이다。

調査團의 報告書 八月末까지 完成
◇日本態度로 熱意가 업서진等理由◇
豫定대로 壽府에 送致될듯

【天津三十日發電通】國際聯盟調査團의 報告書完成은 相當히 時日이 걸리리라 傳하든바 最近各方面의 消息을 綜合하건대 最初의 豫定대로 九月十五日까지에 제네바에 到着하도록 發送될 模樣이다 即 一、리튼卿은 病도 거의 全快하야 不遠退院할수잇는事 二、日本의 態度가 極히 明瞭하야 調査團으로서는 今後報告作成으로 日字를 費할 熱意가 업게된事 三、北中特有의 氣候에 못견데어 各委員도 歸國希望이 强하게된事 四、調査材料의 整理處分은 隨員의 手로 各種事情에 依하야 八月末까지 調査를 完了하고 調査團은 撤退할 模樣이다

리튼卿數日中 北戴河로갈터

【北平二十九日發電通】리튼卿은 報告書의 基本綱領이 遲遲不進하는 責任感으로 過日退院한다고 하얏는데 主治醫의 懇切한 勸告로 斷念하고 尙今病床에 잇는데 數日中北戴河에 赴하야 靜養을 할터이다 又獨伊兩國委員은 二十八日夜 團細約과 同地에 赴하얏다

北中將領大會議 抗日諸問題討議
昨日부터 正式開幕

【北平廿九日發聯合】北中將領會議는 今日午前十時부터 當地順承府에서 開催되엇다 議題는 蔡氏의 提案인 一、湯玉麟을 援助하야 熱河를 拾收할 二、日本軍에 對하야 攻擊的態度를 取함 三、對日國際宣傳을 行함等이다

國權回復通電

【北平廿九日發電通】北中將領의 連名通電은 三十一日의 最高會議에 附議하야 卽發出하기로 되엇는데 右通電은 一致團結하야 國權回復에 北中將領은 外侮를 防하고 北方人民은 上下一心 國難을 救하기를 望한다고 特히 北中의 父兄에 訴하는 形式을 取할것이다

疑雲中의 湯玉麟
今番은 滿洲國支持判明

【奉天廿九日發電通】湯玉麟의 對滿洲國態度는 誤解에 基한 것으로 湯은 어데까지 滿洲國을 支持하고잇는것이 判然하게 되엇다 右에 對하야 湯代表가 最近來奉한事實도 잇고 又石本氏의 釋放도 湯의 誠意를 證하는 것이나 湯이 最困難한것은 張學良의 命令外에 日本軍에 頑强히 抵抗한 鄭桂林軍等 모다 張의 勢力으로 挑戰하고 있는事며 湯玉麟 義勇軍의 熱河潛入及策動이며 少數의 熱河軍으로서는 義勇軍의 策動을 抑壓할수업슴으로 滿洲國當局에서는 此際滿洲를 攪亂할 義勇軍의 根源을 掃滅하려고 張學良을 徹底的으로 決心을하고잇다

石本事件逆轉
結果如何로는 最後的通告

【錦州二十九日發聯合】石本關東軍囑託拉致事件은 義勇軍司令 楊某의 釋放拒絶로 來遲停頓으로 逆轉하얏슴으로 日本吉本參謀는 湯玉麟代理部參議와 會見한 結果如何로는 日本軍은 吉岡參謀를 湯과 直接會見시켜 最後的通告를 하기로 決定하얏다

滿洲國顚覆陰謀 未然에 發覺逮捕
張의 全軍과 各種別働隊가 呼應하야 八月에 奉天을 進擊하라든것
日滿要人도 暗殺計劃

【奉天廿九日發聯合】戰慄할 滿洲國顚覆大陰謀事件은 前부터 揭載禁止中이든바 二十九日解禁되엇다 右는 此八月 張學良이 滿洲를 奪回코저 奉天城을 目標로 全兵力으로써 大擧進擊의 際 瀋陽縣警察局長 張函基、義勇軍總司令 黃顯聲과 連絡을 取하야 部下의 巡警並匪賊別動隊 八千을 가지고 內外呼應하야 一擧滿洲國顚覆을 圖하야 其間本庄司令官以下 關東軍首腦部並臧式毅以下 滿洲國要人의 暗殺計劃을 하고잇든것으로 未然에 日滿當局의 探知한바되어 去五月十六日 疾風迅雷的으로 首魁以下 幹部全部가 檢擧되고 滿洲國當局에 引渡한것이다 一派의 氏名은 如左
張函基(四五) 耿光輝(三?) 程雲樓(四六) 楊春元(三二) 洪德彰(二九) 陳範(三三)

日本에 有利하면 武力抵抗準備
張學良이 調査團牽制
外人側도 今秋變局을 豫想

【北平廿九日發電通】張學良은 最近外人顧問 濠洲도날드氏는 日東의 熱河侵入에 斷乎抵抗할 決意를 하고잇다 爲하야 聯盟調査團의 報告가 日本을 支持하게되면 又日本에 武力抵抗을 하려고 準備하고잇다고 宣傳하고 一般外人도 今秋頃에는 北中形勢에 變化가 잇스리라 憂慮하고잇다

上海排日策動 漸次擴大傾向

【上海廿九日發聯合】熱河事件以來 上海에 又復一部 排日分子의 策動이 잇는데 此運動은 逐次擴大할 傾向이 잇슴으로 매우 注視되다

明治大帝 二十年式年祭

【東京二十九日發聯合】今三十日은 明治大帝崩御하옵신지 二十年에 該當함으로 宮中에서는 午前九時부터 皇靈殿에서 二十年式年祭를 擧行하옵시는데 秩父宮同妃兩殿下, 各皇族殿下, 東鄕元帥를 비롯하야 齋藤首相 各大臣 倉富樞府議長 其他在京文武親任官 勅任官等 多數가 參列하얏다

朝鮮神宮서도 臨時祭典執行

朝鮮神宮에서도 午前八時부터 中祭式에 依하야 臨時祭典을 執行하기로 되어 總督代理, 政務總監을 비롯하야 官民多數가 參列하얏다

官等七百名參列、午前九時半 兩陛下의 御拜、皇太后陛下의 御代拜、皇族殿下의 拜禮、總理 以下 諸員의 拜禮가 잇섯다。

張의 義勇軍 活動逐積極化
各方面으로 進行해온다
滿洲를 二路進擊?

【奉天發電通】熱河의 張學良의 匪賊團의 通遼攻擊은 又義勇軍의 活動은 數日來積極化 二十六日以來의 東北軍邊區 司令 劉振東의 引率하는 一千名으로 成한 有力한 賊軍、二十七日 綏中方面에 出하야 連日奉山線 白旗堡 打虎山間에

中小商工、農村救濟
論策募集明日로 막음
東亞日報社

檀君聖跡巡禮 【三】
玄鎭健

百祥樓

七佛寺에서 메거름을 옴기지 안하야 길편한 臨野가 우뚝한 小丘를 지은 地點에 『自然히 矣은 亭子를 百祥樓라 한다』 한다。몇 層 청마루를 더듬어 樓上에 오르매 난데업는 一陣淸風이 옷소매를 스치며 축축이 땀 배인 胸襟을 爽然히 거어든다。眼界는 숫업시 틔여지는데 한 찬 茂盛한 田疇들이 波狀이양 굼실거려며 멀리 멀리 雲山의 기슭으로 숨어 잔다。

녯날에는 淸川江이 바로 이 樓발부리를 싯으며 흘러갓다 하나 而今엔 아득하게 西便으로 물러나 點點의 靑山을 너흘며 萬幅白練을 널어노흔듯 銀色으로 번쩍인다。『今日揚塵處 昔時爲大川』는 글도 만 보앗더니 文字그대로 實現된 곳이 이곳이다。山河도 變하거든 人事야 물러서 무엇하리。이 樓에 오른이로 滄桑의 感에 一掬淚를 아니 뿌릴이 그 몃며 치랴。

이 樓의 刱建年代는 未詳하나 이 樓의 景色은 高麗忠肅王 詩가 가장 有名하다。

淸川江上古祥樓 萬象森羅難盡收
草偃長堤靑一面 天低列峀碧千頭
錦屏影裏飛孤鶩 玉鏡光中點小舟
末聞人間仙境在 蜜城今日下瀛洲

라면 絶唱이다。아득한 대라하야 無數한 무덤의 痕跡 山의 錦屛속에 이 樓는 정말 외로운 따옥이처럼 날으는듯하나。녯날의 玉鏡이 시방은 푸른 들로 變하얏슬망정 小舟를 點綴한듯한 이 樓의 形狀만은 依舊하다하리라。

誤渡灘、骨積島

樓上에 消暢하고잇든 古老들이 遠來의 客을 爲하야 古蹟을 說明해준다。저 가치 곳이 誤渡灘이오, 바로 그 우에 淸川江이 두 갈래로 갈라 젓다가 다시 合流되며, 편편한 白沙가 三角形상을 지은 곳이 骨積島라 한다。誤渡灘은 隋兵이 멋모르고 七佛의 뒤를 딸하 건너다가 全沒한 流域이오、骨積島라 하은 그 때 죽은 敵兵의 白骨을 싸하두엇다고 이름을 지은것이라 한다。지금도 이따금 그곳에서 작란하든 아이들이 陶器類의 破片과 金 곳가튼 矢鏃等을 어더 가지고 온다는데、俗稱 『甁岺』이라하야 無數한 무덤의 痕跡이 四百五十里를 一日夜에 줄달아 안이 또 뒤를 ……。

이 아직도 남아잇다든가。그러면 그 무덤을 어느편에서 무덤을 간가、하는것이 이 古老들의 甲論乙駁하는 焦點이오 또 最大關心處다。追兵을 背後에 두고 逃命하든 當時隋兵들이 戰友를 무더주고 갈 餘裕가 잇섯슬가? 그러면 高句麗側에서 合葬의 勞를 取하지나 안핫슬가? 아니다、藩其外지 너허서 仇讐의 敵兵을 安葬할 까닭이 업스리라。物論은 이러케 紛紛하다。엇든 이들은 매몰된 淸川의 兩岸도 渤川의 洲濟도 長長하니 살든듯 하지마는、기실은 거기 巨大한 意義가 업지 안흔듯도 시퍼다。當時 高句麗의 氣風의 片鱗을 이 點에서 엿볼수잇는가 하기 때문이다。

肉을 갈하아 戰死에 一生을 어든者 一不過 千이라하얏스니 하로밧사이에 四百五十里를 달유박질할 危急한 形勢에 어느 틈에 戰友의 屍體를 收拾할 生意인들 할것이냐。그 벼의 무덤이 지금도 남앗다면 그것은 두말할것업시 高句麗側에서 무더준것이 明若觀火다。戰時엔 仇敵이로되 한번 戰鬪力을 일코 석굴어지면 다가튼 可憐한 人類가 아니냐。萬里異域에서 白日下에 屍骨을 曝하는것을 불쌍한 情의 熱淚로 무더준것이다。衣類와 所持品과 武器를 고대로 너코、든든하게 편안하게 무더준것이다。그러치 안흐면 數千年을 지낸 오늘날까지 그 戰爭의 影子인들 남앗겟스며、器物의 片片인들 어더볼수잇스랴。엄마나 高揚된 騎士道이며 寬大한 態度이냐。나는 고개가 숙어지면서도、엇개가 저절로 웃슥해짐을 깨닷지못하얏다。

記錄에 依지하면 當時隋將 宇文述等이 引率한 九軍만 三十萬五千餘名이엇는데 遼水에서 鴨綠을 當하고、魂不附體로 安州에서 鴨江까지

臨時議會는 廿三日開院式
會期는 八日間豫定

【東京廿九日發電通】臨時議會의 召集期及期間은 二十日閣議에서 決定할터이데 大體로 廿三日 召集廿三日開院式 會期는 八日間으로 決定될 方針이라 한다

時局豫算은 一般會計로
藏相、諒解求請

【東京廿九日發聯合】高橋藏相은 二十九日의 閣議에서 時局에 關한 豫算은 財源이 업서 公債에 依하야 求하는것인 으로 事務的으로 特別會計로 하은 困難함으로 一般會計로 하얏는 約三年間을 要求하고 對하야는 그 豫算金額을 決定하야 公債發行과 同時에 來臨時議會에 提出하려고 생각하나 繼續事

米國恩給軍暴動 軍隊가 出動鎭壓
警官과 衝突하야 死傷廿八名
華府空前의 大騷動

【華盛頓廿八日發聯合】歐洲포트·마이어 騎兵中隊는 보트 大戰出征軍人에 對한 恩給卽時支拂을 要求하야 華盛頓에 入하야 現金支拂을 要求하야 抗爭을 繼續하든 恩給軍을 卽時解散하야 撤退하기 爲하야 탕크五臺 步兵一大隊等을 卽時出動하야 警官隊와의 衝突 附近의 嚴戒에 當하고 假設兵舍에 占居한 恩給軍은 依然今日에 至하야 暴動化하고 그러는 間에 流慘한 衝突을 警官隊는 드되어 發砲하야 雙方 엄마뒤 暴動은 鎭壓되엇는데 首에 二十八名의 死傷者를 出하얏 都市盛館에는 正히 空前의 大騷動이다 此事態를 憂慮한 후버大統領은 卽時軍隊出動을 命하야 …… 業이면 何如間 三年間의 慰籍金을 一時에 決定한 것은 上困難함으로 更히 大藏當局에서 研究할생각이다 라는말을 述하야 諒解를 求하얏다

마케無電調印
無期延期되어

【南京廿九日發電通】國民政府와 米國마케無電과의 合同契約은 民國政府內에 異論이 잇서 調印은 無期延期로 되얏다

◇蘇聯副領事着任 京城蘇聯總領事館新任副領事 엔·아·말음氏는 廿六日着任하얏다

國際聯盟加入
이라크國이 要請

【제네바廿九日發電通】最近英國의 委任統治에서 開放된 이라크國은 聯盟에 對하야 正式으로 加入을 要請하야 왓다 右要求는 九月의 聯盟總會에 上程되리라 觀測된다

國研俱樂部 卅名以上 催實
五日新黨準備

【東京廿九日發電通】國策研究俱樂部는 二十九日 野田文一郞氏의 參加에 依하야 二十七名으로 되얏는데 繼續하야 豫期되는 栗原彦三郞、中田正輔、伊禮肇氏等의 入會로 不遠三十名을 超할

野田代議士도 國研俱樂部에

【東京二十九日發電通】民政黨의 兵庫縣選出代議士 黨務部長 野田文一郞氏는 그 進退가 注目되든바 二十九日 民政黨을 脫하야 國策研究 俱樂部에 參加하기로 되야 國研俱樂部의 所屬代議士는 二十七名으로 되얏다

것이 確實하게 되얏슴으로 八月五日 新黨準備委員會를 組織하야 同志糾合 政策樹立及 全國各地遊說等으로써 正式으로 新黨組織을 準備에 着手하기로 되얏다 그리고 安達氏는 新黨組織 交渉의 形便上 新黨創立委員長에는 貴族院議員 秋田淸氏 (革新)을 推할 意向이 有力하다

消息

▲渡邊忍氏(朝鮮總督府農林局長) 新任人事次本社來訪
▲穗積眞六郞氏(朝鮮總督府殖産局長) 同上
▲池谷猛兒氏(京城府視學) 同上

橫說竪說

▼京電에서 밧은 慰藉料 百萬圓은 用途가 만허서 걱정인 판。▼南村양반들은 南山周遊道路를 만들자、龍山친구들은 中央部賣市場을 設置하자 고 제각각 제생각。▼市民館도 一說、諸說이 區區하니 實現은 어느때ㅡㄴ고?▼萬一、市外線 一區統一에 關한 요구에게 案을 求한다면

一、市外線 一區統一에 三、市外線 複線敷設費 利益保證金으로 二、補助金으로 四、電車事故、第一切의 말칭거리 防止資金으로 集金銀行 援和特別手當金으로

斷然 京電에 姿勢 協議할 決心。▼我田引水的 要望과 策動에 左右를 살피는 府尹영감! 高見이 如何?

○

土木議會은 鑑審終結後도 如前히 發展、出獄에 닙긴後에 도如前히 發展、出獄後도 如前히 發展?? 한다고 한면?

言論界의 最高水準
東光
八月號重要內容
定價三十錢
京城府堅志洞三二 振替京城一九四一番
東光社

◆論壇◆
齋藤內閣의 經濟政策展望……金佑枰
世界五大學閥經濟와離合……申彦俊
후버와루즈벨트의 決戰……吳天錫
世界의 協同組合運動……韓昇寅
訓民正音의 變遷過程……金允經
勞農國의 戰爭防備……海外論壇

◆特輯◆ 死線에서 農村과 그 對策
成尙勳……朝鮮의 農村救濟策批判
金洸鎭……朝鮮農村의 病源診斷
林炳哲……朝鮮農村은 要求한다

同友會는 무엇인가……朱耀翰
사베트映畫에나타난女性……許北風

◆紙上夏期大學◆
經濟科「金平價政下問題」……裵成龍
政治科「賠償問題란 무엇」……金章煥
文學科「作詩法」……金岸曙
衛生學「病院을 利用하는 법」……劉相奎
家政學「우리家庭의 生活改善」……金晟鎭

◆大衆納凉記事◆
倩娘……尹白南
千古秘密蒙古의 寶山……流浪生
部彌夫人의 貞操……金允經
罪囚들과 國歌……猿林人
掌編 조그마한 叛逆者……李無影
스케취 밥!밥!밥!……한산

◆文藝特輯◆
詩調 비맛고 찻아온 벗에게……曹雲
詩 田園展望……宋順鎰
詩 玄海灘을 건너는者……金鳳濟
詩 漂泊民……李燦元
戲曲 아라비아人의 天幕……吳河潤 作 ……譯
小說 論介의 一生……金東仁

◆黙想記錄◆
難得三寶、民族과 人材
唯心、力心、信仰……史
自覺……李光洙
落望될수 없는 希望

◆事六官◆
너는 까닭……
李光洙氏가 잡을때
安在鴻保釋出獄
女流文人多病
安島山의 入獄後
曾成專門의 其後
音樂家의 消息
紳士들의 體育熱
五放先生 崔興琮氏
朝鮮日報의 陣容
東亞日報의 奔忙
薄命의 文人
金東仁의 原稿生活

◆隨筆◆
共鄕片片……金慶鎭
間島를 등지면서……
香港의 旅……
無題……

◆東光詩壇◆ ◆學生文壇◆ ◆科學斷片◆
◆子日……
◆針大棒少……
◆엔라 스트……

讀書室「米國農業恐慌」……

사물천데 神經痛 류ー마티스 ……

阪部春光社

帶下症・子宮病은 발드시 낫는다!!
一步進んだ 婦人藥
惠乃玉 めぐのたま
主要地域代理特約店
本舖 貴命堂本家

二十八日ヨリ特別大公開
二十錢均一
松陰時雨 10
西部戰線異狀なし
新興キネマ 封切
團成社

慶北에 大酷暑襲來! 日射病으로 死者續出

溫度는 華氏百一度十二突破

◇旱天暴陽에 宛然한 焦熱地獄

大邱府內만 五名絶命

【대구지국전보】 대구지방의 혹서는 참으로 살인적이어서 지난二十일이후수은주는 련일 九八내지 一〇一도를 상하할뿐아니라 한방울의비도 오지안코 더욱 二十九일에는 一〇一·二라는 금년최고의온도를나타내엇다

그때문에 주소부정의 조수윤(曹秀允)이라고하는 七十一세된 로인이 일사병에걸려죽고 또정수암이라고하는 五十세먹은사람도 일사병으로죽엇다 이것으로써 일사병에걸려죽은사람은 합계 五명이라고한다 경성칙후소말을들으면 작년보담 자못 노파 근년에 드물게보는 혹서라한다

昨今殺人的酷暑로 府民用水量激增

◇더위와 갈증에 부대낀 부민◇ 斷水의 憂慮도 不無

작금에 살인적혹서로 반미안아 한난계(寒暖計)수은주(水銀柱)는 ·처히 상승하고 더위와 갈증에헤매이는 四十만부민의 더위를씻고 목욕축임수도수(水道水)의사용량도 딸하 최고도로올라갈뿐이다 작二十九일 부민의수도수사용량은 一백十三만七천三백九十四립방피트에 달하야 금년으로는 최고의기록을지엇다는것이다

지금의 사태로 이더위가 계속되는때에는 일평균 一백十一만립방피트를 나리지아니하야 경우에따라서는 단수의염려까지 엇지안타고한다

지난二十五일부터 작二十九일까지 전후五일간 부민의一일 수도수사용량은 다음과갓다

二十五日 一、〇五九、〇〇〇立方呎 二十六日 一、〇七八、九〇〇立方呎
二十七日 一、〇九八、〇〇〇立方呎 二十八日 一、〇八六、一九六立方呎
二十九日 一、一三七、三九四立方呎

豫審의 安昌浩 監獄에서 呻吟

【神經痛과 消化不良等】 老軀로 念慮되는 經過

경성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어잇는 변호사 김병로(金炳魯)씨는 어지금서대문 형무소에수용중인 수일전면회를하엿는데 그는 안도산안창호(安昌浩)는 그의 성명 신경통(神經痛)과 소화불량으로 안면을 하지못하야 신체가매우 쇠약하엿다고한다

그리하야 감방에서는 매일감옥의사의 진찰과 시약을밧는중이나 원래로구입으로 배우념려된다고한다

이와가튼 소식을들은 그의가족중 족하되는 안맥결(安麥結)씨는 二十九일 강서(江西)로부터 급거상경을 하얏다고한다

重油火葬設備

지난번 경성부회에서 추가예산으로써

極秘裏宿所輾轉 蒼海密航八日間

배가운데에서 여러번혼절

【二】 話題의 金瑪利亞孃

비상한활동이라는 일은로 보동(城北洞)어떠한 로파의집에 보석되어 치료를밧고잇던 김마리아양이 어떠한 방법으로 에나가 주인을삼고 김근포(金[illegible])라는 이름으로 행세를하게 되엇다

그러다가 병세가 더치어또 세부란스병원과 한양병원 다시 세부란스병원에입원을 하고 며칠잇다가 동년六월十二일 오후세시경 동병원을 버서나와 양산으로 얼굴을가리고 인력거에 몸을싣고 一시역에서 [illegible] 국으로 탈주를하얏던가? 어데서 대수술을하고 몸은 점점 쇠약하야 피골이상접하고 형용이 초췌하야 친절에 알든사람조차 얼른아라보기어려울만 몸되엇다 그는 한양병원에서 회원하면서 그즉시로 시외청 [illegible] 하얏다

그날밤이되어 어둠침침한때에 동양은 중국복으로 변장을하고 자동차에 몸을실어 인천항구로 줄다름을첫다

仁川碼頭에서 密行 運命을맛긴木船

하야두엇든 어떠한집에서 기다리엇스나 병든몸으로 자동차에서달린까닭이엇던지 그기력이 도저히 一엽편주에몸을 그때에 이미 인천의숙소를정하야 [illegible] 미리준비하고잇 러처치다 한다 그럿께마다

席島에風浪맛나 三日間進退維谷

황해(黃海)의 창랑을박차며 달리가는 김양 한배는 어느듯 서해안석도(席島)에다다랏슬때에 해풍이심하야 할수업게되어 그곳에서三일간 을묵고잇다가 출범을하얏스나 몹시부는 풍랑으로 배가 흔들리어 김양은 여러차례를 까무러첫다 한다

실고 항행을할수업섯나 주인동아을 그곳에서 쉬여가지고 해十·멀이 남들이 다각불길을불타가지고 중국사람의 복색에다가 몸뚱을집이 섯섯스나 이十·명의 일에는 도이권의 부이회원(在…)의가족과 김승조(金…)의가족四명 그외에 명이엇섯다 이제가면 언제올지 아지못하는 행운 배에닷을감어올리고 배버리가 동하할때에 어서국의 눈물이듯 아니흘릿스랴

千辛萬苦一週餘 반가운손威海衛

든 주사를 노흐며 一행의따뜻한 간호로 소생하고 또소생하얏다는데 이와가튼 참경을 치루면서 쉬지안코 가노라니 출범후 七일만에야 위해위(威海衛)가 어렴풋시 보이엇다

천신만고 제八일만에야 반가운 류지! 위해위에 상륙은 하얏스나 병세가 더욱 침중하야 목적한 상해로 직행할수업슴으로 一행들은 먼저 보내고 한사람어저서 주간을 치료하나가 자기의 친척되는 모씨가 상해에서 와가지고 동행하야 一로상해에 도달하얏다

心臟病外지 併發 一時는絶望狀態

상해에 도착한 김양은 즉시 병마가 떠나지 아니하고 심창 병까지 더생기어 포석로(蒲石路)어떠한 병원에 입원을하고 치료를 하얏스나 완쾌는 도저히 바랄수업는 형편이엇섯다

◇……사진은 애국부인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옥히이 려으로 촬영한것 右로부터 1 金英順 2 黃愛施德 3 李惠卿 4 辛義敬 5 張善禧 6 李成完

談合事件一段落 官廳方面檢察開始?

檢事局活動은新方面으로展開

巨頭十七名不起訴

수개월동안을 두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과 본정경찰서에서 활동을하든 토목담합사건은 지난 이十여명을과 가동검사국에서 예심에회부아는 동시 그사건의 거두도빈 渡邊 한정 品川등 여러사람은 一시 미결청 대로 석방을시키고 이래그들에 대하야 불구속취조를하든바 十일 전긔두등압에의 十七명에 대하야 불기소처분을하야버렷다

이제부터의 검사국활동은 전긔예심에 회부되어잇는 八十여 명에대하야 모종범죄의 유무를 다시 검색하게되고 또다방으로 일즉부터 세간의 소문이자자하든관청방면의 토목사업시행(土木事業施行)에대한 내막을검찰하리라고한다

▲不起訴 川渡發定一郎 ▲荒井初太郎 ▲熊城鋪三郎 ▲角谷其太郎 ▲池谷安一 ▲高原榮助 ▲五島榮藏 ▲森坂孫八 ▲鈴木壽八 ▲津田辰次郎 ▲中原甲藏 以上十一名 早田檢事取調分 ▲池田角小 ▲榊田喜代八 ▲北鄕松四郎 ▲吉野留吉 ▲岡田傳太郎 ▲小川成一 以上六名佐佐木檢事取調分

龍山步兵隊 中隊長自殺

룡산보병제七十八련대제五중

二等車中에怪少年

二千圓大金綻露

이동경관에게 발각되어 現金出處를調査中

【신의주】 지난二十八일 오후 八시 신의주착봉행렬차 二등차 안에는 평양부신창리(新倉里)六四 리무표(李斗杓)의차남 리무영(李武英)이라 가칭하는 소년이 가야한내ㄷ를보이고 이엿슴으로 승차경관이 수상히생각하고 신체수사를 행하얏든바 대금을 휴대하고 잇서 월경도만 하려든것이 판명되엇다는데 전긔금액은 자긔의부친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미상한점이 만흐므로 방금 시의주서에 류치하고 평양본가에 조회중이라 한다

求刑은二年役 言渡는過料

【신의주】 지난二十九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왕래 방해사건의 피고 박천군남면남송동(博川郡南面南松洞)六八 방광호(方廣浩) 동동九九조봉오(趙…) 에관한공판은 조(曹…)검사립회하에 금부(編部)재판 전중(田中)사무관에게 처달되엇는데 정관에게 처사료를 하사한 일이에 대하야 감격한 다고한다

殉職兩警官에 祭祀料下賜

지난六월 명예의순직을한 중강진(中江鎭)순사부장 구원건(久原乾二)과 원랑향일(元浪貫一)의 량씨에대하야 그장렬한순직이 천청에달하야 二十八일 더내로부터 제사료로서금一봉씩을 하사립신다는 통첩이 二十九일 척무차관으로부터 정무총감에왓다

하사금은 목하동경에잇는 전명은 아직건례가업는 파격의 은전으로 조선의 一만八천의 경관은 무상의광경이라하야 감격한다고한다

馬占山護衛兵 田中部隊에全滅

【하르빈二十九일발전통】 지난 二十七일전중(田中)부대는마점산(馬占山)의정예호위대七、八백명을류가점(劉家店)방면에서 철저적으로 격멸하야 그중사자(死者)二백五十명 주상자 다수를내어 마점산의호위대는 거의전멸상태인데 일본군의손해는 업다고한다 그리하야 마점산은 필경신변의 위험 이절박하야 수염을깍고 도망할곳을 찾는중이라한다

煙台炭坑監視員 反亂軍에게被襲

【봉천二十九일발전통】 연태탄갱(煙台炭坑)의 감시원 복강현(福岡縣)출생 소천충미(小川忠美)는 지난二十八일밤 八시 반경에 탄갱을순시하든중 수명의반란군에게 습격을당하얏다 그는중상을당하고 작二十九일 봉천만철병원(滿鐵病院)에서 치료중이라한다

制違犯四名 奉天에서被逮

【신의주】 만주에서 조선○○운동에 활동하든 제령위반사건의김태선(金泰善)이하四명이지난二十八일 봉천(奉天)총령경의손에 체포되어 방금취조를밧고잇다는바 신의주 검사국에서는 역二十九일즉시 구인장을발하얏슴으로 그들은 불원간신의주로압송되어오리라한다 그들의씨명은 다음과갓다 ▲金泰善 ▲金德龍 ▲金成俊 ▲李萬浩

(京圓市熱線)의 완성과 동시에 그사용을 개시할터이라 한다 이중유화장 그소각시간이 一시간반내외로 종래 소각시간의 시간에 비하야는 一시간반의단축이 되는것이라 한다

실시하기로된 부장제장(火葬場)의 중유화장(重油火葬)의설비는 목하진행중 주간전열선

撫順으로避難한同胞 五百戶三千餘名

그들의 참장은 참아 볼수 업다

歸國者도五百餘名

【무순】 동변도일대에서 병난과 도적에게 쫏겨서 연선 임대로 피난오는동포가 만흔데 무순은 신빈현(新賓縣)일대와 심해선(瀋海線)일대의 관문이니만큼 류로로 걸어오는 피난동포는거의 무순으로 오게되는데 그동아 무순에 온 피난동포의 수는五백호 二천명을 돌파하얏다는바 그중에서 귀국한 동포가一백十호 五백명이 넘는다고한다 그들의 구제의것은 무순농포들의 구제금으로 모은돈六백여원으로 매호에 一원이나二원으로 하도이틀살아가나 장마끼에 든이며 그들의 참담한생활 상태는 말할수업다고 한다 날마다 그들은 무순민회를차저와서 구제를 요구하나 당국의 방침이 업서 민회에서도 여간한곤난이 아니라는데 귀국하는동포들은겨우안동까지반차비나 되면민회에 의뢰하야 五할인차임으로안동까지가서안동민회의주선으로 조선까지 보낸다고한다

시각으로 급박해오는 생활과 병고에 시달리는 피난동포를구할길은 과연어데잇슬는지 그들은 눈물과한숨으로 운명에 몸을맛길뿐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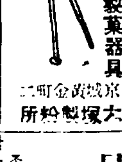
金君은發病 徐仆만繼續 長距離마라손

【김천】 씨는듯더운 염열일에 부산(釜山)서 신의주(新義州)까지 멀고먼길을 도보로 도달하려는 장한뜻으로 부산을 출발한 서진국(徐鎭國) 김봉수(金鳳洙)량군은 밀양(密陽)대구를 지나 김천에 도착하엿든데 김봉수군은 불행히 중도에 병이발생하야 부득이 중지하고 서군만은 초지를 관철하려고 김천까지와서 一박하고 二十九일북을향하야 출발하엿다 한다

마라손 그원인은 작년사변 발생당시 방해하얏다는것으로 검사는 방회 립입(立入)하야 괴차왕래를 명주리(孟中里)간 철로에 무단히 十九일 오전十一시五十분 동 오후령시 四十五분 당차 박천과 가이잇는바 사건내용은 지난四월十九일 장으로부터 각과료十원의 언도 대장송전등평(松田藤平)二씨는 작二十九일오전六시 四十분 한강통(漢江通)十번지의 륙군관사온돌에서 권총자살을 하얏다한다 그원인은 작년사변 발생당시 감긔든몸으로 출정하얏나가 돌아와서 폐염에 걸리어 치료주 완쾌가 되지아니하엿음을 비관한까닭인것가다 한나

地理歷史科 教員協議會

경성사범학교(京師)주최제一회전국중등학교 지리력사과(地理歷史科)교원의 의회는 지난二十九일부터 三十一일까지 동교에서 개최하얏다는데 전국으로부터 백여명의 교원들이 참석하얏다고한다



菓子原料와製菓器具 京城黃金町二 大塚製粉所

平壤署도活動

【평양】 평양경찰서에서는 오는八월一일 반전(反戰)데이 경계를지난二十八일부터 시작하야 각방면을 크게경계하는바 지난二十九일에는 유진식(柳鎭植) 리원길(李元吉) 손원헌(孫源憲)등세사람의 검속이잇섯다고한다

呂運亨招待 晩餐會開催

體育界有志發起

조선체육회에서는 금번여러 감옥에서 출옥한 려운형(呂運亨)과가타 하로밤지녁이라도나누어먹고지 하야 취흥게 유지들이발긔하야 다음과가티 만찬회를 개최한다는데 려운형은 운동계에 기드리해가잇슨뿐아니라 왕년에서 축구단이 상해에 원정하엿슬때에도 다대한 공헌이잇섯슴으로 유지제씨의 다수참가를 희망한다고한다

日時 七月三十一日午後六時 場所 明月館支店 申込場所 朝鮮體育會內(電光五七八) 會費 一圓二十錢(當日 必持參)

朝鮮運動界有志一同發起

中島○隊奮戰

【국자가발전】 지난廿六일오전八시 용정리자(龍井村子)서북방 九미 오나즈지점에서 중도부대는 약三十의반란군과 충돌교전하야 격퇴 주격중 그서북량선에서 새로약 四十명의 반란군으로부터 사격을바덧슴으로 즉시 응전하고포위공격하야 十一명을 몰사케하고 다대한손해를주고 귀환하얏다 이전투에서 보병제七十四련대 생천일등병은 오른등관절에 맹관총창을바덧다

獨逸艦沈沒 五十名溺死

【백림二十六日電通】 독일 해군병학교련습선니오베號는 二十六일 풍랑에 맛나 침몰되엇는데 승무원六十九명을태운 그중四十명은 구조되고 기타는 행위불명이되엇다

反戰日警戒

反帝反戰데이 元山署警戒

【원산】 八월一일은 제국주의 반전쟁반대의 날인으로 원산서에 서는 이날을 긔하야 좌경운동시 엄중경계중이라한다

자츳에서 모종의 감행운동이 아지나안흔가하야 二十五일부터 특별경계에 착수하야 二十일 부터 二十一일까지 더러머리 물샐틈업

猖獗하는通遼虎疫

死者五百名突破

同胞의罹病者도續出

【奉天二十九日發電通】 본월호렬에서 사용하는 소제부류충 정지를 시키고 려객과종업원등 봉천경찰에 도달한 정보에의하면 통료(通遼)지방의 호렬자로 금조(錦州)시반경 대련서 신(新民)은 수일래 설사(虎疫)는 정정창궐하야 二十四 하엿슴으로 즉시 격리병사에 계출 일에는 주국인경영 요리점에서 수용코 금번한경과 호렬환자발 조선사람 二十명이 동시발병하 야 二十六일에는 전부사망하얏 이二十七일까지 진정 호렬자로사망한인원은 백三十명에 이르렀 금월초이래 사망한자는 五백명 에이르럿슴으로 만주국 민정부 에서는 방역에 전력을경주하고 잇다

大連에도虎疫

【大連二十九日發電通】 대련(大連)대화 동여관(大和旅館)에숙박하든 연二十八일 一명이 의심이 있슴으로 당국에서 호렬균을 호렬진단하엿는데 호렬한 대련은 二十八일가의 호렬이 영업을 도망하얏다 한다

金山府草梁八〇 全昌齒科醫院 電話七六番

熙川에늑대 자는사람물어

【신의주】 희천군희천면 라지동(熙川郡熙川面羅之洞)八四七 정승화(鄭承華)의식구四명은 지난二十一일오전 두시경 더위를못이겨 대문을열고 잠에서 자든바 늑대한머리가 칭입하야 돌연정승화의 외손인 개와 머리를물어 경상을내엇다는데 가족들의 고함소리에 늑대는즉시 도망하얏다한다

慶南一圓細胞體 警察取調一段落

◇불일간 관계자를 송국할터

大邱事件과同一系統

【부산】 경북대구에서 발로된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사건과 관련된 마산, 밀양, 진주, 하동(馬山, 密陽, 晉州, 河東)을 중심으로 경남일대의 세포조직이 발로되어 경남 경찰부에서는 각지경찰서에서 피검된 二十六명을 검속 취조중이든바 작二十八일 도경찰부에서 최종적 취조를 마치고 김해경찰서장 부산지방법원검사국 원교(元橋)검사 를방문하고 경과보고를 행하고 일체서류를 송국하려는데 부산 검사국에서는 불원간 송국바다 취조하리라는데 피검자의 외에 다수가되리라 한다

巡查募集 朝鮮總督府並外務省

講義錄發行 只今直時 申込開始 規則二錢切手封入 申込하시오

京城府水標町二 振替口座京城一八一〇番 朝鮮警務學會

新職業 公開

何人이라도 容易하게 小資本으로 開業할수잇는 新職業

▲自動洗濯機·味の素·清醬·酢·粉末石鹼·リース·歯磨粉·香水·香油·クリーム·白粉·美顔水 (器具機械不要)

機好의定安活生

各種食料品 化學工業品 定價 朝鮮中央化學工業所 振替口座京城五九九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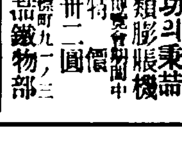
音福의者職求

◉各種職業案內 小資本職業百餘種을指導함 朝鮮職業案內社 社長 金信德 振替口座京城五九九一番

急告 地方特約販賣店大募集 電氣新特案 다리미 製造元 東亞電氣工業所 京城鍾路三丁目六五 振替京城一二三〇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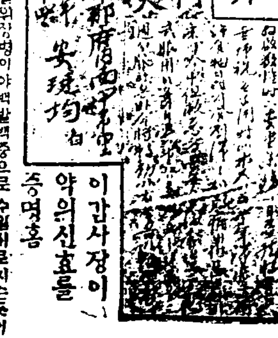
生 恩給 朴商會

小資本成功의秉喆 穀類膨脹機 特價 卅二圓 京城水標町九一ノ三 金秉喆鐵物部



체증 속병 과 엔

새로발명한 경오-를쓰오 만일무효면돈을도로드리오



사십년된 체증이 완치 이간사장이 약의신효를 증명홈

京城府西大門町二ノ86 神聖堂大藥房 振替京城四九五〇番

地方論壇

惡商의 暴利를 取締하라

江景 一記者

朝鮮은本來水旱不均으로 年年東은旱天無雨 西는洪水泛濫 南은豊作不備 北은旱災風災의 影影色色의 災難을 蒙하는다 그런데 最近에는金肥謹이 巨大한問題가되엇다

金肥는只今農家의 不可缺한 材料로되어잇다 그런데農民은 그만한資金이업다 그럼으로 農民은事에 着手한 農民은時機에

金肥는 絶對로 要하는 反面에 旣債가山積한데 아 金肥代를償得임으로 不得已이에는 金肥商에게외상을求하게된다 그런데 金肥商等은 이機會를 利用하야 「압모니아」一叺價 二圓二三十錢(此는元價)에 利益을加하야 現金으로販賣하는 價格)을 秋收期에 徵收할契約과 아울러 二三人의保證人을 세우게하고 一金三圓五十錢也라는 借用金證書를 差入케하며 萬若現金과 如한時는 籾(穀)百斤을 引渡하라는 如是强盜的搾取를 敢行한다한다

金肥商等이여 未識한 四個月에 무슨利子가 一圓三十錢이 一圓五六十錢이며 農民大衆의 血汗의結晶인 籾穀이 百斤이요? 新昇도良心이잇스면 이우해노파있고 著白한農民大衆의 엇궁한활탈에 一分의 同情이 잇슬것이다 그러나 惡商의根性은 根性이다 그럼으로 法的으로 아것을取締치안흐면 안된다 當局의監督을促한다

郵便配達回數縮少

차라리增加하라

黃澗 一記者

郵便所는 現代文化施設의 하나인 重大한機關이다 그럼으로 그經營者도서는 自己의營利를 도모하는것보다 먼저 그地方의 文化向上과 一般의便宜를 爲하는것이 先務일것이다 그런데 黃澗郵便所는 其今으로부터 約二十年前에 前野元一郎氏의 經營으로設立되엇는데 二十餘年이라는 長久한사이에 地方便宜와利益을 만히주엇슬것이어다 그런데 事不忠其有初요 鮮克有終이라 只今 山間僻地인 黃澗國安兩個里에 元來二日一回式 郵便物을配達하던것을 郵便物이적다는理由로 四日에 一回式으로 配達日制를 縮少한關係로 그兩個里의 住民은 新聞雜誌等을購讀할수업다고 非難이 만타 郵便이 文化向上을爲하여 當地住民에 便宜를爲함인데 前記兩個里에 配達回數를 前과如히 二日에 一回로 다시變更하기를 促한다

戶別割不納同盟

道知事에 異議申請

◇全州郡參禮面民들의 不平◇

昨年보다 十割增加

【전주】 전북완주군 삼례면내 호별할동맹을 결정하얏도 불구하고 (全州郡參禮面)의 유력자요 면의 결정방침을 위한것과도 면협의원 리(李)씨는 토지사정지가(土地査定地價) 리태옥(李泰玉)리교원(李敎元)동씨는 十七割로 결정한것을 二十割로 변경하야 제一귀볼 호별할(戶別割)부과하야 작년의 八十원외호별할동음이 불공평하다는 리유하에 백九十원으로 증가로 호세급공과금一 원을 납부치 아니하기로 동맹하고 전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얏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면협의원회에서 가애다는것이라한다 그런데 一반면민은 호별할이 작년에비하야 十할이상이 증가한것은 면의처치가 부당하다고 불평이만타고한다

窮民救濟코저

沙防工事陳情

二백여호 궁민을 구제코저

慶南漆北有志들이

【칠북】 경남함안군칠북면(漆北面)은 함안十一면중에 가장빈민면인데 년래의 부삭으로 주민의 대부분은 생활이 극도로 곤난하다한다 그중에도 궁자로 지정된 二백여호는 구급을 요하는터임으로 위선그들을 구제코저 면내 유지백여명은 현안중에 있는 동면봉촌(鳳村)과 운곡(雲谷)양리에 있는 五十여정보의 사방공사를 곳실시하여 달라고 연서로 도당국에 진정하게되여 방금준비중이라한다

市場增設反對

◇……北青邑東里에서

道와郡에陳情

【북청】 함남북청읍은 동리에 보통시장이잇서 지금二八장을 보아오는바 서리(西里)에서는 우거二八장가온대에 一六장을 더설하여 한달에六장을보돈것을十二장으로 하여주되 그장소를 서리에하여달나고 지금운동중일뿐외라 호세불납 동맹서지 하엿다함은 긔보이엿거니와 이것을 안 동리(東里)에서는 이구시장문제가 장래완읍민에게 중대분쾌라하여 각구에서 허지협의한결과 가설반대운동을 하기로되어 각리에서 八백여명이 서명날인한 진정서를 휴대하고 지난二十七일 첫차로 김남석(金南錫)박정화(朴楨和)김인현(金仁鉉)三씨가 함남 도당국에 음에출발하고 一방 군당국과 읍당국에도 진정하얏다 한다

留學生歡迎會

【려수】 려수(麗水)청년회 본보려수지국후원으로 오는 七월 二十九일 오전十시부터 려수류학생환영회를 동회관에서 개최한다는데 일반류학생은 다수히 참석해주기를 바란다하며 이말을들은 려수읍 동서정(東西町) 유지의 물질적도움이 적지안케 답지하야 발서부터 대성황을예기한다고한다

旱魃·枯渴·新雨

未秧、枯死地

六萬餘町步

지방비 감소 예상코 절약

地稅免除約十萬圓

【전주】 전북도농무과(農務課)보통농사계에서는 계속되는 한발로 말미암아 피해면적을조사한바 답총면적 十七만三천여정보에서 미앙지가 一만五천여정보 수리조합과 제언과하천등을리용하야 이종을하얏스나 한발로고사한 피해면적이 四만五천여정보에달하야 총면적의四할이라한다 그럼으로 전북도당국에서는 중대문제라하야 지방비 예산액이 감소될것을전제로하야 지방비로 설계하얏든 사업을중지함과동시에 절약에주력하는 한해대응책으로 미앙지와 고사한면적을 총합한 六만여정보에 교맥 서숙 무피등을재배하라고 독려하며 한해리재민 구제방침으로 한해지를조사하야 지세를면제할계획을 작성중이라는데 대정十三년도(甲子年)의경과로보아서 각세금이 약十만원이 감소되리라는데 도지방비예산중에 十만원가량은 절약코저한다고한다 그럼으로 지난二十九일에전북도각과과장의 토의가 이섯다 한다

保寧에旱魃

移秧地도枯死

【보령】 충남보령(保寧)지방 람포(藍浦)신안면(新安面)람포면 주포면(周浦面)청소면(靑所面)등지는 이앙하기도 六七할에지나지 못하고 이앙한것도 봄이래강우량의 부족으로인하야 농촌인심이 극도로흉흉하다

高敞新雨祭

【고창】 전북 고창군(高敞郡)은 아즉까지 모를내지못한八백여정보가남어잇는데가물이계속되어 일반민심은 날로험악화됨으로 동군주최로 지난二十七일 오후十시 고창면읍내리(邑內里)사직단(社稷壇)에 긔우제단을차코 구례식에의하야 동군수 조춘원(趙春元)씨이하 전군각 면장과 군민이 긔우제를거행하엿다한다

旱害地方을 知事가視察

【군위】 경북군위일대에는 초춘부터 가믄것이 지금까지 예간혹비가나리나 전작물에 겨우해갈이될뿐이오 이앙에는 조금도 흡족하지못하야 수리가 우수한 보평(洑坪)약간을제외하고는 방방곡곡이 여긔저긔 듬듬이이앙한것조차 이앙이되자마자 곳물이말라 고사상태이라한다

舒川水利區域

養魚全滅狀態

수리조합도물이말려서

【보령】 충남일대에 한발로인하야 고갈치안는곳이 업게되는중 서천관내수리조합에도 물이고갈상태에 이르러 조합저수지가 거의말느게되어 고기잡이하는사람이 답지하는중 보령지방사람들도 지난二十八일 한사람평균두점씩이나잡어 왓다고한다

西面山內面에 旱魃이極甚

【경주】 경주군서면산내면(慶州郡西面山內面)지방에는 아즉 이앙치못한곳도 간혹잇스나 이미이앙한 대부분의수도에는 이앙직후 지금에이르도록 한발이

昌原到處에 新雨祭騷動

【마산】 경남 창원군일대에는 지난六월초에 채 해갈도 어려운 비가 조금잇고는 그후수개월동안 계속되는 한발로인하야 전답은 모다말러 농작물이 고갈되고 초목도 한편만아니라 식수동까지도 걱정되어 가는곳마다 긔우제로 대소동을 일으키며 인심이 매우흉흉하다한다

馬山新雨祭

【마산】 지난달二十일경 근해감의비가 온후 여래一개월동안이나 계속되는한발로 전답이고갈되고 식수가결핍되어 도처에 소동으로 한울만바라다보고 비오기만기다리든바 二十五일부터는 구마산 표정(俵町)총대 김규환(金圭桓)씨외十二명 총대가 마산부외머리 림석하여 오후十시부터 저도(猪島)에서 三일간 긔우제를 성대히거행한다고한다

康津地方의 農作物枯死

【병영】 전남강진지방(康津地方)에는 그二十일을두고 비가오지안하야 농가의일반인심은 흉흉하다는데 압흐로 비는오지안코 매일 九十二도되는 혹서로 인하야 가식답과 그의농작물등 고사지경은 물론이며 군내는 우려중이라한다

계속되어 관수에 대곤난이오 일반전작물에도 피해가 막심하다 하며 더위는十여일을련하야 백도를 중심으로하고 오르나리니 이것은사람으로하야금 견되지 못알 지경이며 그래도농가에서는 우려에싸인낫으로 배양한울만쳐다보고 비오기를 바라는중이라한다

沃川에旱魃

既植畓도全滅

【옥천】 충북옥천지방(沃川)에는 이미보도한바와가티 다른지방에 비교할지경이면 조흔편으로 이앙이되여 전면적에 九할이상에 이르럿다 그후에 한발이 계속하며 거게고갈지경이 되고 잇스나 날마다 올줄을 못하고 비가 아니와서 일반인심은 날로 불안하여 흉분하니라 四五일내로 비가오지 아니하면 이미 이앙한 답은 명의상래가 될지경이라고 일반 二할의미앙답은 봄보리로 비가 안오면 미앙하리라고 한다는데 백두 병영면(兵營面)만하여도 八할이상이 미앙이라 한다

渡江兩女子

無慘히도溺死

去二十八日龜城서

【신의주】 지난二十八일 귀성군방현면 팔하동(龜城郡方峴面八下洞)길하천(吉下川)을도섭하든 동동 오씨(吳氏)(二○) 강씨(康氏)(一○)두녀자는 탁수에 휩쓸려내려 무참히도 익사하얏다한다

元山經濟講座

【원산】 원산교육회(元山敎育會)에서는 하긔강좌를다음과가티 개최하게되엇는데 강사는 일본경제학자중 신진권위자로 자타가인정하는 조대강사 림경제학박사라 한다

一、期日 八月八日부터三日間
一、演題 資本主義와統制經濟
一、講師 林經濟學博士
一、聽講料 一圓

納涼音樂大會

성황리에종막

【안악】 지난二十五일 오후九시부터 안악읍안신보교 대강당(安新普校大講堂)에서 성악가 안과영(安果永)씨와 제금가 최호영(崔虎永)씨 녀성으로는 옥한 김현순(金玄順)씨의 음악회가잇섯는데 안악으로는 처음보는 성황을 이루어 더욱히 안악정호료사의 의숙한 소연까지잇서서 대환영리에 종막을고하얏다고한다

北朝鮮蹴球

안변에서개최

【신고산】 함남안변위익면(安邊衛益面)방대(防隊)운동구락부에서는 제三회북조선축구대회를 금월 三十一일에 개최한다는데 만흔참가원이 잇기를 원한다하며 장소와규정은 좌와갓다

一、場所 防隊運動場
一、參加金 一組二圓
一、人員 九人一組

公普校設立에

位置問題紛爭

◇창원군 웅동면민들이

東西兩面으로對立

【웅동】 경남창원군 웅동면(昌原郡熊東面)은 아즉까지 공립보통학교설립이 되지못하야 아동으로 입학할곳이업서 대단히곤난하야 지난十七일에 유지간담회를 면사무소에서 열고 협의한결과 긔부금모집을 면으로하고 학교설치를 진행하는중 위치문제로 암투가맹렬하다는데 동부五개리는 두동으로 서부四개리는 마천(馬川)으로 하자는 분쟁이심하다한다

殷栗郡六個公普

授業料減免實施

무산 아동교육과 농촌 구제로

◇殷栗李郡守의努力

【해주】 농촌궁상의 반영으로 맛치는 보통학교수업료 문제는 이에새삼스러운말이다 전조선의 궁민으로 이의감면을 실실히바라든터이다 이에뜻한 은률군수 리종택(殷栗郡守李鍾澤)씨는 농촌구제책의 하나로 관내六개소보통학교에대하야 수업료의 감면실시를하엿다 그리하야 이의실행은 벌서지난七월一일부터 하무형맛一반의칭송과함께 실행되어잇다고한다

橫領會計員

공판에회부

【대구】 경북달성군 농회의회계로이삼을 리화로 농회소돈一천六백여원을 횡령하야 리미로 一확천금을 생각한 소천무차랑(小川茂次郞)은 대구서에 검거되어 검사국에넘기엇든바 二十七일 대구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치엇다한다

海州志歡亭一景

물과 바람차저

【해주】 해주의지확청(海州) 志歡亭은 여름한철에 엇지못할 납량처가 되어잇는 칭자이다 시원한 청자와 보기에도 시원한 숨과 운파의 담수가 흐르고 또한 고여서 목욕하기도 비할데업시 조흔곳이다 그리고 이정자의 감주인 비밀을 든추워본다면 정신이 아득한 무섭고 눈물고이는 애의 비밀사실이잇다

西道力技大會

【안악】 안악읍에서는 八월二十六일 오후三시부터 안신보교 운동장에서 서조선력기헌상대회를 안악체육회주최와 본보안악지국 후원으로 개최케되엿다 성황금五十원을 오는八월二十五일 오후五시내로 안악의원과 본보안악지국으로신청하기를바란다한다

霖雨近廿日

浸水家屋多數

一백여호나 침수가되어

新義州府內外의被害

【신의주】 근二十일래의 장마와 마르지못한 압록강과 각지류에 달하며 이외에도 다수피해자에 잇는 중수로 이렇 침수가옥 잇는모양으로 목하 조사중이라 어부내 운정정(雲井町)에 一백호 한다

納涼音樂會

麗水서開催

【려수】 려수 악우회(麗水樂友會)주최 본보려수지국후원으로 오는八월三, 四량일간 시내에서 년례대로 납량음악회를 개최한다는데 음악 무용 극 영화 등이 잇다하며 그수입은 수양단과 다른 사업에 쓴다는데로 벌서부터 대격이 만허 가비등하다한다

여지密酒犯

無罪로判決

사온술을 밀주라 벌금廿원

順天稅務官吏處事

【순천】 전남순천군서면압곡리(順天郡西面鴨谷里) 남계왕(南桂王)은 지난五월八일에 보리작을하면서 그날일꾼을 먹이려고 동면월등리(月登里) 김모주류판매소에서 탁주를 사다가 먹고 약一승가량남겨 두엇든바 그날마침 군세무관리 권(權)모는 밀주취체차로 리정기남씨의집에 가서 안주이차잘 동(洞)만 잇을때에 온집안을 삿삿치 수사타가 전긔술을발견코 주세령위반이라하야 벌금 二十원에 처한사실이 잇섯다 그후 남계왕은 억울함으로 동 벌금을 납부치안햇든바 동사건은 검국 지난六월十五일에 공판에 회부되여 함판사(咸判事)의 심리로 사건은진행중이든바 결국 무죄판결이 되엿다한다

文川藥水發見

【천내리】 함남문천군(文川郡)부근에 약수가 발견되어 약수가 十개소가 발견되엇는데 수량도만코 성분도조후으로 벌서부터 래객이 만허 가비등하다한다

濠信學校長

安蘭讀氏別世

二十六일 마산 자택에서

廿年教育事業盡力

【마산】 마산호신학교장(濠信學校長) 안란애(安蘭讀)(?)씨는 지난廿六일오전六시에 상남동(上南洞) 七씨번지에서 사망하엿다는데 원인은 평소부터 외장과심장병이 잇섯는대 그날아츰 우물에 몰투러 나갓다가 졸도되어 마츰내 마비로 사망하엿다

동씨의 장의는 마산교회와 호신학교두단체에서 연합식으로 지난二十七일 오후한시반에 당지의신학교교정에서 당지호신학교및 일반교인 수백명이 참집하야 비장한 빛이식을 거행하고 유해는 진주(晉州)선교사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자동차로 운구하엿다한다

동씨는 一천八백 七十七년에 호주(濠洲)빅도리아주멜본성에서 출생하야 일즉 유아학교와 신학교를 마치고 一천九백十二년에 조선에들어와 진주(晉州)에서 선교사로 잇스면서 사립광림학교(光林學校)를설립하고 교장으로十三년동안 근무하다가 一천九백二十九년에 마산호신학교교장이되어 오늘까지

白花

朴花城女史作 李青田畫 (53)

순결한 처녀정 (一)

백화의 열여덟살 되는 정월은 닥쳐왓다 금년도 어떠한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잇는가? 정월을 마지한 서경은 두텁각금 하기는하엿스나 다만부친과 정세의 말만 하엿슬뿐이오 기의 홍보매회와가튼 명기들의 왕사의말을 한때는업섯다。

화는 뜻밖에 이날은 그녀혼자 초옥에게 처사둔의 이야기를 려주기로하엿다。

하야 더욱 전에업는 큰 잔치를 성대하게 버렷다。

근 보름동안 어찌나 밤낫으로 몹시 불러다니엇든지 열나흔날이 되버는 극한피곤을늣기엇다。

그러하야 황퇴에게는 아침부터 눈이 나린다는 것을 핑계로 오늘은 그동안의 피곤을 좀 풀기위하야 쉬겟다는뜻지를 미리하여노코 초옥과단둘이서 눈색려는 날한 조용히 보내게되엇다 이날이 부친의 생신임에

인제나 왕생을 니즈랴? 어려서의 순진한정은 바뀌든 왕생에 니즐리가업다 더구나 자기에게 그러한결심이 생긴후로부터는 왕생이 몹시나 그리워지게되것이다 백화는 몸을 도려키며

「초옥아! 오늘이 무슨날인줄 아니?」

하엿다

「아이구 그걸 몰라요 오늘이 아버님 생신이지 그러구 래일은 아버님께서 장에가시든

해아지 청실두 그만두구 커녀이나 일쥐 먹게하는게 올치」

하며 미다지를 조심스럽게 닷고는 도라가 버린다。

엇나흘 이날도 서경친지에게 청을 써아준것으로 찾을 맛

어멈이 커넥상을 들고 백화의 침실에 나로왓다

「그만들 이러나요 무슨 잠을 저러케 자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니불을 들추니 니불이 허터지며 얼굴이 보인다 니불을 벗기어 지며 백화의 붉으스름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다。

날! 그걸 내가 니저버릴가봐 ……아어 형님도……」

「아이 자롤도하지 나는 배가 어저버린줄 알엇지 그래서 지도 안흐냐? 거저가 안됏게……」

초옥은 백화의말을 듯으면서 여전히 미다지를 연채로 눈나리는것을 보고잇섯다。

「초옥아! 어래온 배고와서 내저려 누어라 내 자미잇는 이야기 해줄터이니 언제 또 이러케 조용한 때가 잇겟니? 응 어서와」

백화가 다시 재촉하엿다。 초옥이와 한방에서 지내인때도 오래전이다 초옥이가 열네살 때에부터 한방 거처를하게 되엇기 때문에 한방에서 밤을 지내는일은 퍽 드물엇다。

초옥은 미다지를 드윽닷고 나려나면서

눈은 오는데 살찔개 경황 바람이 부니 솔나무 춤을 마른 나무엔 꽃이 피는데 련뜻 잉어는 한숨을 쉬어요 하고 가늘게 목소리를 빼여 노래하면서 알에 스르르나려오드니 니불을 번적 들고 들어와 백화의 억개를 버고 가슴에 착 안긴다 백화는 초옥을 꼭어 안는다 이때한 포옹이 그들에게는 인생미잇는 유일의 위안이엿다。

정신없어도 지낫다 어데서 와서 서 웃그러다가

「보둘을 줍오시나 아모소리 도업게」

하면서 가만히 미다지를 열어본다

「자는구면 둘이서 누은게 똑 혼자누은것 가태 아이구 참 곤하게도 잔다 그동안 원체 볼려다녀 노곤하니까 오죽 곤해야지

全朝鮮脚戱大會

◇時日 八月四、五、六日三日間
◇場所 江西邑內
◇施賞 一等特大牛一頭(二三等賞品多數)
◇主催 江西 [illegible] 青年會
◇後援 東亞日報江西支局

第四回蹴球大會

◇日時 八月六七兩日間
◇場所 新[illegible]球場
◇申請 八月五日까지(支局으로)
◇加入金 一圓
◇主催 新[illegible]青年會
◇後援 東亞日報[illegible]支局

會合

◎興水公普校同窓會 來八月一日興水公普講堂에서開催
◎興水夏期口師範學校 지난二十九日부터 新院長老敎會에서開催
◎龜城司法代書人會定總 去卄六日龜城支廳에서開催
◎龜城郡面長會議 去卄三日郡廳에서開催
◎棉作打合會 安溪、北龜에比 安新多(?)新平七個面棉作打合會 去卄八日安溪面事務所에서開催

消息

◎金錫丰氏(咸北道知事) 旱害狀況視察次去二十八日安溪에出張

◇張即日龜城邑方面으로向發
◇安鴻魯氏(大興電氣會社山支配人) 同永同支店長으로轉任人事次去二十八日南山支局來訪
◎川上正演氏 同會社永同支店長에서南山支配人으로轉任次同上
◎洪下吉氏(南山支局長) 隨伴江(?)出張

地方雜信

扶安 一

◇扶安地方은 이른봄부터 旱魃로 騷動하든것이 요새는 所謂不外지 狀態

◇이上의加害로 惡熱病이 지쳐生하얏는데 退治策업다고 人心은더욱洶洶

◇나무재계서 먹으라고 婦女子들은 每日數十名式成群하야 다닌다고

謹告

任記者 金學晉
昭和七年二十三日 金浦支局

記者 沈東寅
依願解職
昭和七年七月十八日 東亞日報社舒川支局

任顧問 林範
任總務 金海濱
任記者 李應虎
任集金員 文興
昭和七年七月二十日 東亞日報社長湍支局

任記者 李
昭和七年七月十七日 東亞日報社大浦支局

ClibPDF - www.fastio.com

二千啓蒙隊活動開始
三千里村村에 글소리琅琅

◇第二回學生◇ 브나로드運動 各地隊員消息 【其三】

廣梁灣 先生은九名 生徒數는百十二名

七월二十二일부터 광량만기독교회당 및유치원에서 강습을개시하얏다 기간은약 十五일로 예정은하얏스나 학생들의 째다른정도에의하여 좀더연기를할가한다 강습과목은한글 수자 동화 창가동 네과목이오며 오전九시부터정오까지 진행중입니다 선생은 九명이요 학생은백十二명으로 三반에나누어 한글을표준삼는터이며 열성으로교수하는 교사는 조희홍(趙熙弘) 서기풍(徐基灃) 정신형(鄭信亨) 차동웅(車東雄) 조인히 차영순(車永淳) 김희웅(金熙雄) 서광실(徐光實) 김다첩(金多捷) 제씨로강습회의정비는 시내명조희장(趙熙章) 강신순(康信淳)씨가 진담하야주셋스며 씨는 브나로드운동에 열렬히후원하는분으로 작년 제一회에도 진담하얏든터로 진학생의경모를 밧는터이다 무산아동을 상대로하는만치 잡기장과 연필까지배부하얏다 우리로서 한가지깃붐과감동을 마지안는것은 전기 선생들중에도 조희홍(趙熙弘)과서기풍(徐基灃)량씨로 五十을넘은로령인도불고하고 일심청령을 다ㅣ하여 교수에종사하신다는것을볼때에 우리가튼청년들에게는 큰자극파충동을 주고잇다 (責任隊員鄭信亨)

여름 해빗은 뜸시도 쏘이는 삼복쩌라 학교는 방학하고 관공서에서는 반사무만 보는째에 공장에는 어느째나 다름업시 일은 아침부터종일 뜨거운 볼에 실을 뽑느라고 더위와 싸우고 하로에 피곤을무릅쓰고 다각기 남맹의 길을떠나 남과가티 여성직업전선상에 활동코저하는 마음이야 우리 브나로드운동에 참된 마음뿐일니다 (責任隊員朴勳錫)

春川郡 男女卅一名 少規模나滋味잇게

귀사에서 보내준 한글 게수법등을가지고 춘천군동면장학리(春川郡東面鶴里)에서 七월二十六일부터 시작하얏다 생도수는 남자가 十六명 녀자가 十五명이다 교과서는 물론귀사에서보내주신 한글과게수법에 국한하얏고 규모는 적으나 매우자미잇게 하여나간다

順川郡 二部로分別 初等中等高等까지

場所 新倉日新八校
開始日 七月二十五日
終了豫定期 八月十五日
課程 한글、셈、창가、音樂、동화
年齡 滿六歲로十七歲까지
部別 初等部 少年部 中等部 高等部
授業時間 每日午前九時로十二時十分
學生數 男七十名 女一〇〇名
講師 男女留學生及日新八校教師
後援 新倉教育主日學校 (責任隊員吳日權)

唐津郡 事實上禁止 許可手續에四週日

방학후즉시로 귀사로가서 브나로드운동에 참가하야 매본三백여부를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면의문맹을 전부타파하야 하겟다는 큰계획하에 하로밧비하향하얏다 그런데 하향하자 이틀날인 七월十九일에 어대서소식을 들엇는지 고대면(高大面) 경찰관주재소 소장이 나를차저와서 이번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 운동에 참가하얏느냐고 뭇기에그러타하고 량해를구하엿든바 허가가 업서서는 못한다하야 그러유를무른즉 한글과 수자를가르키는것은 강습소의형식으로 교과서를 사용하야 조직적으로 교수하는것임으로 적어도사주일이상을 요하는 도지사의허가업시는 절대로 못한다는것이엿다 나는이말을듯을때에 공연한눈물이 펑펑쏘앗다 무지한 형제자매를 깨우쳐주려든 변변치못한이 계획도 주재소장의 말한마듸로 모다수포에돌아가고 말엇다 이러케단순한 계획에무엇이불순한점이 잇다고보아 三주일밧게안되는방학동안에 하려는일을 四주일이나 요할수속을하라고 하는고? 그러나 할수업는일이다 래년에는 방학전부터 수속을 하엿다가 금년에못한노력으로 힘닷는데까지 하여볼가? 그러나 그것은 래년일이다 금년에못한것만한이다 (責任隊員劉漢範)

瑞山郡 晝夜二班 老少向學熱은高度

始作月日 七月二十一日
當日人數 男卅六名 女八名
場所 自宅

남자는 농사에 밧본 탓으로 오후九시부터 十一시까지 녀자와 유아는 오전九시부터 十一시까지 두차례로 나누어가르치는데 그들에게도 향학열은 불붓덧스나 가난과 쏠들러 여의치못한데이 만흔듯하다 (責任隊員李庭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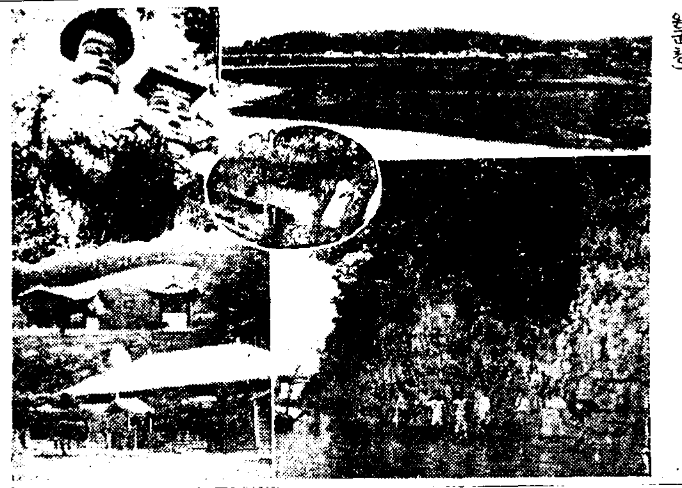
平山郡 年來로繼續 現生徒數六十三名

始作月日 七月二十四日
場所 黃海道平山郡積岩面新衛里新沙洞 (自家)
人數 七十名 男五十二名 女十八名

신위리(新衛里)부근 각동리안에는 천부의소질을 씨이는 소년이무수하야 내가 신체불건강으로 휴학하엿든 소화四년에 동모二、三인이극력주선하야 한용흠과 한비흠두모도 교명을동하든 한하교로일컷고 한봉흠주최로삼아 보통학교과목으로 五개월간교훈하다가 사정상五년에는오태여(吳泰汝)씨에게 업무를 맛기어 곤난한것을무릅쓰고 계속한결과 전첨생도가증가하고 보교二、四학년에 七、八명이나 입학되고 여의히 교사는 건축치못하얏스나 각처에서만흔칭찬을 밧고잇다 금번 브나로드운동도 본교내에서오(吳)선생과 합력하야 실시해나가는데 생도수도점차로 만하간다 (責任隊員徐殷培)

京城府 隔日로夜學 製絲女工을主體로

一、場所 朝鮮製絲會社內
一、實習人員 一五一名 全部女子
一、實習日 七月廿二日
一、終了日豫定 八月卅一日
女工에게夜學으로 하게됨으로 隔日로하야 月、水、金曜一週間에 三日인고로 期日까지는 三週日이됨
一、隊員 金鍾烈、李淸邦



臨津江畵報 本報讀者에提供할

지금에도 초조한 형해이나마、리률곡의(李栗谷)의 화석정(花石亭)、대원군(大院君)의 흥원、청우계(成牛溪)의 몽구정(夢鷗亭)、황방촌(黃尨村)의 반구정(伴鷗亭)등은 옛조선의 위인의 면영을 그리게한다 다사적재료가 풍부한 위적이 퇴폐함을보고 본지국에서는 오래전하도록 하기위하야 화보를 발간하고 래八월十五일 현재의 애독자에는 유무업시 지정월더이다 (右로부터 문산시가、림진강석벽、조선제이위의 광탄석불、화석정、흥원군칭)

傳說 (32)
戀戀不忘은九龍沼
◇왕자와 사랑을 속삭이든◇ 柳氏夫人의보금자리

奉化 任一宰(寄)

지금으로부터 일천백여년전 신라(新羅) 三十三대 성덕왕(聖德王)시절에는 세상에 드러나지안흔 안타까운숨은 이야기가 퍽도 만엇답니다 멀리 중원(中原)에는 당(唐)나라가 잇서서 안록산(安祿山)과 밀통하든 천하일색의 양귀비(楊貴妃)가 당명황(唐明皇)의 심사를 질탕펄탕 하얏스며 불결가튼 눈물흘님과 앵도가튼우숨밭에 장부의 철석간장을취생몽사(醉生夢死)로 만들어노코 문물제도(文物制度)가 흘황하든천하강국(天下强國)을 흔드럿스니 남의짐안의 일이나마 불만하얏스며 동방선국(東方仙國)의 신라에 와서는 성덕왕이 태자로서 혈기호방한 승경(承慶)이란분이 잇서 락동강(洛東江)을 배경으로 허다한로맨스를 만히 남기엇스니 이제말하는바 태백산중(太白山中)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에 경상북도 봉화(奉化)영에 소천부곡(小川部曲)을빙도라서 동북산중으로 구비구비 치다르면 한양(漢陽)을바라보는 태백산에 솟앗스니 속칭망경대(俗稱望京臺)를 못밋처서 락동강의 원류(源流)를 지은 이르는바 구무소(九龍沼)가 보기에도 서먹먹하게서 푸른물결을 마주치고잇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못이 된것이아니요 옛날에도 옛날에는 유명한 조부자(趙富者)의 고래등가튼 개와집이 섯든 곳이랍니다 경경이 섯역이요 간간이열두대문을 한참이나 열고들어가서 후원별당으로 휘도라가면 정결하고 신선한 수간방이잇습니다 이방에는 조부자의 맛며느리되는 류씨(柳氏)가 거처하야 청상과부의 쓸쓸한몸으로 남모르는 한숨과애닯은 가슴을 쥐여뜯고 잇섯습니다 방년 二十좌우되는 피는듯한미인으로 속철업는세월에 불멀듯하는 욕망과 불가티타오르는 서지못할 열렬한 숨은청욕은 천지 지지 자지 가지(天知 地知 子知 我知) 아무도 아려주리가 업섯습니다 뜨거운 태양(太陽)이 서산을넘고동산에 명월이 붉으레 솟은후 자정(子正)이 넘은듯되어 천지가 고요하면 덜컥내려안는 두군거리는 젓가슴을 붕켜쥐고영원의 생사를 결탁한 은근한애인(愛人)을 맛나게됩니다 구중심처의 침침한 단등넘어사랑을 차저오는 그남자는 밤마다 이러케 류씨부인을 상대로불가튼 사랑에 옷깃을적시고밤이슬나리는 잔듸풀속에 청춘남녀의 쉬뜻한 온긔가흐르는나 오히려불믿듯하는 영원한할수업는 공포심도 만혀겟스즐 도독사랑에는 다시금 말것이엇습니다 이다지도 못이기 희망은 날이더할수록 빈넝거리는 가슴속에 한박앗이 피엿습니다 어연날밤 류씨 부인은역시그림든애인과 소복을마주잡고 그래도 수집은마음과못이길정오로원공향하야 (月宮姮娥)에 게한숨을 보내며 붉은 입술이 마주치를 새닷지못하얏습니다 그러나 이다지도열렬한 구든사랑에는 또다시마지못할 한기쁜 지주가 잇서서게명성이자자한 그때까지도보드라운 별음흘더 앵무침에눈물불흘척실며가 한두번아니엿습니다 세상의 눈을써리는것보다 기피든정을 버리기가어렵고죄스러워서 무서운것보다 안타까운 사랑을잇치지는 못하얏습니다 도시이남자는 다른사람이아니요 명승지지(名勝之地)를 만유하든 신라왕태자승경(新羅王太子承慶)이라는 청년이엿스니 일국의왕자임을표시치안코 년소괴질에 잡혀풍청을다하든 또한자미잇는일이라하겟습니다 그후왕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행하야 고사마고을로 도라가고 보드라운것가슴을 움켜쥐며 구슬가튼눈물이 맷쳐서 연약한몸으로하늑거리는 그모양은 떠볼한왕자의가슴속에도 실로귀엽고도애처러웟슬것입니다 이러한지몃칠이나 지난뒤에 하로는 로승이차저와서 시주를청하얏습니다 그러나 심술구진사랑방영감은 욕설을 던지며속을안뛰엇습니다 이광경을안류씨부인은 던죽 쌀한되를가지고로 승을 차저가서 사과를드린후 그쌀을주엇습니다 로승은흔연히치하하며 류씨부인에게다이르는말이 잇섯습니다 부인댁에 불각지변(不覺之變)이 잇슬터이니 오늘밧오시(午時)전으로피란을가되 절대로뒤를도라보지말나고하며 어데로인지흔적업시사라저버렷습니다 류씨부인은 즉시로망부소생(亡夫所生)의 어린애를업고 황망히문밧글나서 줄다름을칫습니다 별안간에 부인의뒤에서는 벽력소리가나며 천지를뒤집어 업는듯하드니 류씨부인이놀내여도라다 보는동안에아방궁가튼 그집은 폭삭문어저 못이되어물이철철넘어흐르고 그모양인 어린애업은 마록이 되어버렷습니다 지때에 이르는바 태백산의구무소가 즉 이것이니 천년고대(千年古代)의이상한 자리으로오늘날 구룡소(九龍沼)라는 이름을가지고 락동강(洛東江)의 원류가 되어 동래부산(東萊釜山)으로 유유히흘너나립은 다시금감구지회(感舊之懷)를 금할수업습니다

第二回 朝鮮語講習會

講師 申明均 張志映 李秉岐 權悳奎 李熙昇 李鉀 金允經 李萬珪 崔鉉培 李常春 李允宰 金善琪 (無順)

講師擔當區域 申明均(裡里、群山、全州、金堤)▲張志映(馬山、統營、晋州)▲李秉岐(大田、松汀里、羅州)▲權悳奎(黃州、鎭南浦、平壤、鐵原、元山、咸興)▲李熙昇(光州、順天、麗水、論山)▲李鉀(信川、海州、沙里院、安岳)▲金允經(金泉、東萊、蔚山)▲李萬珪(春川、長湖院)▲崔鉉培(水原、清州、槐山)▲李常春(仁川、安城、洪城、天安)▲李允宰(永興、興南、鎭興、清津)▲金善琪(新義州、運餉、宣川、定州)

裡里	自八月一日至同三日
黃州 光州 信川 金泉 仁川 永興	自八月五日至同七日
里 馬山 大田 鎭南浦 順天 海州 群山	自八月九日至同十一日
統營 松汀里 平壤(後援) 麗水 沙里院 全州	自八月十三日至同十五日
晋州 羅州 論山 安岳 新義州 東萊	自八月十四日至同十六日
水原 安城 興南	自八月十五日至同十七日
運餉	自八月十八日至同二十日
蔚山 春川 清州 洪城	自八月十四日至八月十六日
鎭興	自八月十七日至同十九日
鐵原	自八月十七日至八月十九日
金堤	自八月十九日至八月廿一日
元山	自八月十八日至同二十日
宣川	自八月廿一日至同廿三日
槐山 天安 清津 長湖院	自八月廿二日至同廿四日
定州	自八月廿三日至同廿五日
咸興	自八月廿三日至八月廿五日

主催 東亞日報社
後援 朝鮮語學會

臨沃貯水池 枯盡돼無用 주위八十리되는담수호 腰橋湖까지도말러

【리리】 각지수리조합 저수지가 고갈된다 함은 이미 루보된바어니와 만그대로 전선에유一로 한림옥수리(臨沃水利)저수지인 주위八十리를가진 담수호(淡水湖)로유명한 황등요교호(黃登腰橋湖)도 벌서 비명의극에차서 이수의농력을발휘할수 업게되엇다 이저수지의 관게구역이 천여머정보에달하는터이바 이현상더로간다하면 모다고갈되고말지이라하야 불안을늣기는터인데 지난계사(癸巳)년에도 그러한일이 잇섯스나 금년가티심하지는안엇다한다

開業記念施療

【길주】 함북길주역전 차도의원 공의인 로부규(盧富圭)씨는지나간七월 초순에 길주군 양사면합수천도 의원장으로 영전이되자 후임으로 명천군읍내에서 영업하든공의인 림병일(林炳日)씨가 지나간十월十五일에 길주천도 의원에 임명되어 개업을시작하게되엇는데 개업기념으로 八월一일부터 一인간 일반환자를무료로 시료하게되엇다고한다

順天留學生會 十回定期總會

【순천】 전남순천유학생회(順天留學生會)에서는 지난二十九일 오후二시에 순천보통학교에서 제十회정기총회를 개최하야 모든의안을 一사천리로 진행하얏다는데 당일중요결의사항은 다음과갓다
一、音樂會開催의件
一、講演大會開催의件
一、留學生對順天有志對抗庭球試合開催의件
一、少年蹴球大會開催의件
一、其他

高敞에대出現 兒童一名殺傷

【고창】 전북고창군 공음면 군유리(全北高敞郡孔音面軍遊里)에서는 지난二十一일밤 큰산으로부터 느며한머리가 돌입하야 ... 려는것을 가족이발각하고 다행히생명은 구하얏스나 중상을당하얏다 그러고二十二일새벽 오전五六시경에 란천면인 동군대산면광대리(大山面光大里)정근하(鄭健夏)의외아들六세된아이를물어갓는데 근처장자산(莊子山)에서 시체로발견하얏다한다

全安東野球

【안동】 조선、동아(朝鮮、東亞)량지국주최로 오는八월六、七량일간 제一회 전안동야구대회(全安東野球大會)를 보통학교구장에서 개최한다는데 참가금은二원으로 신청기한은 八월五일오후

榮州公普生 砂防工事에實習 ◇매일로임은수십전씩 夏期休暇利用하야

【영주】 경북영주읍 공립보통학교(榮州公普通學校)에서는 五、六학년아동으로 영주지방비사방공사(地方費砂防工事)에 교가를 리용하야 四、五十명 참하야 약四十일동안 실습(實習)케하엿다 그공사장에서는 매일수十전씩의 로임을주어 학용품에 보조하리라한다

貨物車殺人 廿七일삼례에서

【전주】 전북전주군삼례면 삼례리(全州郡參禮面參禮里) 류인규(柳仁奎)(二五)씨는 지난二十七일에 삼례十자로에서 전주서 청 마루정화물자동차 전북제九二四호와 충돌되어 무참히죽엇다는데 급보를접한 전주서사법주임이 현장에급한하야 조사한후 운전수신호균(申浩均)은 과실살인죄(過失殺人罪)로 취조중이라한다

高靈에旱魃 新雨祭擧行

【고령】 경북고령군은 금춘이래에 계속하든한발로 인하야 모를 잘내지못하얏슴은 물론이며 이미내인것조차 백타이나서모뿐아니라 전곡까지 만히말러버렷다고한다 그리하야 一반인심이 매우흉흉하다는바 지난二十六일 오후三시경에 개진면량전동(開津面良田洞)의 여러동민들은 거동을하여 그부근고산(高山)에 비가잘못는다는 강미봉에 올라가서 종일봉화를질러연기를내며 망마제이를 차 기우제를성대히 거행하얏다고한다

전주소낙비 겨우모낸지적서

【전주】 전북전주(全州)지방에는 六十여일동안 계속된한발로 농작물은 진멸상태에 빠졋는데 지난二十七일 오후六시경에 남쪽에서 흑운이이르나든바 별안간의 소낙비가 내리왓다는데 겨우모낸지만은재엿스나 소락비만큼 물이잇는곳에는 다소의 효과가잇스나 一반으로보면 오나마나하다고한다 우량은 十九미리라하며 비올가망은 업다고한다

多年懸案의 保田線許可

【혜산】 혜산진에서보전리(惠山鎭—保田里)로 통하는 자동차선로(自動車線路)는 여러해동안 허가문제며문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말성이만터니 지난七월二十四일에 혜산진 혜산의원장 강기준씨(惠山鎭惠山醫院長康箕俊)에게 허가되여 수일간 보전으로 자동차가 통행하리라한다

荷物自動車 組合을組織

【왜관】 경북왜관에서는 화물자동차조합(荷物自動車組合)창립총회를 七월三十일 오전八시 왜관주조조합사무실에서 개최한다는바 조합원수 六백구로 하고(일구십원) 자본금六천원으로 화물차二대를구입하여서 래八월五일부터영업개시를 하기로결정하엿다한다

教育講演盛況

【평양】 강동군 원탄면에잇는 사립게명학교(啓明學校)에서는 지난二十七일 하오八시반에 부내백선행기념관에서 경성리화고등보통학교 교수 김창제(金昶濟)씨를 청하야 교육대강연회를 개최하얏는데 일반에게 만흔늣김을주고 대성황리에 폐회하얏다고한다

韓景職氏歸國

【평양】 평남평원군(平原郡) 한경직(韓景職)(三二)씨는일즉이 평양숭실전문학교(崇專)를마치고 一九二五년에 미국으로류학가서 『캔사스』주『엠포』대학을마치고 다시『프린스톤』대학에서 五년에 신학사의 학위를엇고 지난十九일에 귀국하야자긔향리로 돌아와다고한다

臨津江名勝古蹟 靑色고로다이푸版
本報讀者 無代進呈 (八月十五日現在讀者)
畵報內容—臨津石壁、李栗谷、花石亭、大院君興園、彌勒佛、汶山市街等을撮影한寫眞八切大版
東亞日報社汶山支局

三南庭球大會
◇日時 八月七日(雨天順延)
◇申請 八月五日까지 本報星州支局으로
◇場所 星州公普校코ー트
◇參加金 一團(三組)一圓二十錢
◇主催 本報星州支局
◇後援 星州學友會

冠帽峰登山團
◇日時 八月六日부터一週間
◇旅費 金四圓、鏡城、朱乙間八十錢
◇定員 二十名
◇申請 八月二日까지、鏡南支局、鏡城、朱乙
◇主催 東亞日報鏡南支局

第一回全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一、二、三日(雨天順延)
◇場所 江西體育會運動場
◇參加 青年團 金一圓 少年團 金一圓 少年團選手身長五尺一寸以內
◇主催 江西體育會
◇後援 東亞日報社江西支局

第二回關北蹴球大會
◇時日 八月六、七(兩日間)
◇場所 城津公普校運動場
◇參加金 每團一圓式
◇申請 八月五日까지 城津本町丸中商店
◇主催 城津公普校友會
◇後援 本報城津支局

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六、七兩日間
◇場所 昌原郡北面公普校코ー트
◇參加金 每團一圓式
◇申込期限 八月五日까지
◇申込場所 昌原郡北面體育組合
◇主催 北面體育會
◇後援 北面農村靑年會 東亞日報馬山支局

第二回平北個人庭球大會
◇時日 七月三十一日
◇場所 車輦館幼稚院코ー트
◇申請 七月卅一日午前十一時까지 每組八十錢
◇主催 車輦館體育會
◇後援 東亞日報車輦館分局

第一回南鮮庭球大會
◇日時 八月七日
◇場所 唐津郡庭球코ー트
◇期限 八月六日
◇申請 唐津邑內東亞日報支局
◇參加金 每組五十錢
◇主催 在京唐津學友會
◇後援 東亞日報唐津支局

第二回西鮮庭球大會
◇時日 八月六日午前八時三十分
◇場所 龍岩浦公會堂코ー트
◇申請 八月五日
◇參加金 二圓(三組)
◇主催 龍岩浦公立普通學校同窓會
◇後援 東亞日報龍岩浦支局

여름철이면 흔히 류행하는 전염병의 예방과 처치 【二】

◇호렬자、장질부사、리질에대하야◇

京城帝大岩井內科 金東益

호렬자에대하야

호렬자는 여름철로부터 초가을에 류행하는 대단히 위험한 급성전염병이니 조선서 소위「쥐통」이라고 무서워하는병이 이것입니다 호렬자는 八八四년에독일사람「코호」씨가발견한호렬자균으로 외지하야 발생하는병으로서 이균이 입으로드러가서 위(胃)를통과하야 소장(小腸)에가서 병을이르키는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통설사가 이삼차 잇슨뒤에 특별한 호렬자설사가 나오는것이니 극대변이 수업시 나오고 또 그형상이 대변의모양을 일허버리고 흡사히「쌀뜨물」모양으로 부연물이 나오는것입니다 그와동시에 토하기를 시작하야 소위토사곽란증을 이르킵니다

또 압에다려에 쥐가올튼다고 말하는것 즉 한문으로 말슴하면 배장근(腓腸筋)이 경련(痙攣)을이르켜서 몹시아푸게됩니다

이와가튼 증세가 두서너시간 지나면 벌서 전신에 병독이 퍼저서 심장이쇠약하야지고 소변이 불통이되고 목청이 쉬기도하고 손발은차되게되며 눈은 써지고외식이혼몽하게됩니다 이병은 대단 위태한것이어서 약을쓴가망이나 사망하게됩니다 딸하서 병에 걸리지 안토록 예방하는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제일」 환자와의접촉을 피할것이니 그중에도대변과 또는환자의쓰든 긔구를전부소독해야 만됩니다 또다른 전염병보다도 더욱 속히병원(病院)에 입원시켜서 따로히 치료를 하여야만 다른가족에게 전염되지 안습니다 이병균은전염된지 불과 두서너시간 만에도 이병이 발생하는일이잇는만큼 병독이 무섭게 맹렬한것임으로 한시각이라도 지체하야서는 아니됩니다 예방법

「제이」로는 뒤에장질부사에대하야말할때 좀더자세히 설명하겟거니와 익히지아니한 음식과 랭수를 먹지말것이며 겸하야 과음과 과식을 피해서 항상 위장을 튼튼히 가질것이 필요조건입니다 호렬자균은위산(胃液의酸)에 대한 저항력이 약함으로 더욱 위를 튼튼하게 보존하는것이 필요한것을 아실것입니다

「제삼」의 예방주사는 장질부사와가티 오래동안은 효력이 업스나 삼사개월동안은면역성(免疫性)을 어들수잇고 또 설혹 주사를 마즌뒤에 호렬자에 걸리는일이잇드라도 대단히 가볍게 경과하며 딸하서 사망률이 적어짐으로 예방주사는 맛는것이필요합니다

호렬자환자의

◇처치법으로는◇

쉬대로 숨겨두지말고 신임할만한 전문의사에게 속히치료를 청할것이외에 다른도리가업습니다

또호렬자와 비슷하고도 아닌 병이잇스니 즉보통 토사곽란증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두가지의 구별은전문의사가 아니면 도저히알아내기 어려우니 아모러튼지 이러한병이 잇슬때에는 속히상당한의사의 진찰을바드심이 만전지책이올시다

朝鮮의謠讖 【七】

李殷相

半島의긴歷史中에서 麗末四十年間의 歷史만큼 우리의注意를 끄으는時代가 드물것이오 그中에서도威化島回軍만큼重大한것이 업슬것이라생각한다。

高麗에서는 英明한恭愍王이 外次의兵亂과 權臣의專恣와 및 僧侶의擧用等으로因하야 國政을 일하다가 마칠내죽고 禑王이 뒤를 어렷슨때에 北方大陸에서는 元이亡하고 明이 그뒤를차지한지라 高麗의朝廷에서는 國策의宜를定하고저 議論이紛紛한中 더욱이 兩班黨인 崔瑩과李成桂가 意見이不一하여 崔氏는 遼東征伐로써 國運을一新케하자하고 李氏는 元에對한 旣態度대로明에게對하자고 主張하엿다。

그러나 明은 鴨綠江 (鴨綠江支流)가에 鐵嶺衛를두고 高麗國土를 害하려하므로 崔瑩은 이에크게憤慨하여 禑王十四年 (一三八八)四月에 征明의師를이르켜 八道都統使가 되어 王과함께 平壤에옴겨앉으며 曹敏修, 李成桂等으로하여금 五萬軍을거느리고 鴨江을건너 遼東을 攻하게하엿다。

그러나 李成桂는 다른뜻을가지고잇어 大軍이 鴨江의威化島에이르자 더進軍치아니하고 淫雨도 渡江키어렵다는 口實을들어 回軍을 決行하엿다가 마침내 崔瑩을 高峯(今高陽)으로귀양보내고 또王을江華로 내처죽인後에 드되어 朝鮮을 새로 세움에까지이르럿다。

이回軍을 前期하여 돌든童謠가잇엇으니

西京城外火色
安州城外烟光
往來其間李元帥
願言救濟黔蒼
(高麗史)

京城밖엔 불빛이오
安州城밖엔 연긔로구나
그사이오가는 李元帥여
우리백성건저지시오

이童謠는威化回軍으로그驗을 보앗다고 하거니와 이한史實이아말로 朝鮮國土擴張, 國權一新을意하여 얼마나 痛惜한일인지 모르는배니 이에어찌民衆의 哀怨一聲이 업엇겟는가

이것과聯絡되는同時의童謠로

木子得國
(龍飛御天歌)

나무아들 임금된다

는것이잇엇으나 이는이禑王의 때가 이미高麗의末葉일뿐 더러 李成桂의 勢力이 暗暗裡에커저가는것이엇으므로 將次「木子」即「李」氏가 得國하리라는 李朝建國讖言이엇든것이다。

東閣雜記에依하면「때에王氏는滅하고 李氏가興한다는童謠가잇엇스나 高麗의끝이라 숨기고 發表하지는못할새 相師惠澄이란이가잇어 그욱히일러가로되 아무개(即李成桂)가 王氏를대신하여 반듯이興하리라하더라」는것이잇고 또朝野輯要에는「藏書雲觀에 九變震檀之圖、建木得子、朝鮮九變圖、十八子之說이잇어 다檀君때로부터잇는것이라」는말이잇으며 其他이에關係된傳說로는 손잡히는文獻이 자못一二에 그치는배아니거니와 一國의國權이 다른사람의손으로 옴겨지는것이 決코그적은일이아닐뿐더러 이만한大業에잇어서는 童謠또한없을수없음이毋論이다。

그런데 여기參考로 붙이고저하는一言이잇으니 그것은「木子得國」의「木子」를 朝鮮語의「나무아들」로 解하이 毋論妥當한일이나 筆者ㅣ 오래前부터 傳聞한바에 依하면 그當時 이童謠가 처음나올때에는 「남의아들」이라는 뜻으로 돌든것을 李朝의 建國에다 끄을어 붙여「나무아들」即「木子」로 만든것이 아니엇을까 하는것이니 이「남의아들」(人子)이란것은이禑王의姓이 王氏가아니라 辛氏라는說에서 생긴解釋이다。

本是 恭愍王이 無子한것을 當時問題의人 辛旽이 般若라는 婢子를王에게드려 아들을얻게하니 아기의이름은 牟尼奴, 이가곧이禑王이기때문에 그가 恭愍王의아들이아니라 辛旽의아들이엇다는說이나 이辛氏說은 李氏家中에서 지어낸말인지 毋論이매 믿을말이 못된다고보는것이며 同時에 이童謠 본시「나무아들」이아니라「남의아들」이엇으리라는말도臆測이라고밖에 더생각되지않거니와 이는如何間 지금도 或은 이러케말하는이가잇으므로 붙여說明한것이다。(續)

물의작난

화재의 진범인도 되고 총으로 사람도 죽여

중발여름 리용하면 얼음대신도된다

철마즌 물이야기 몃가지

더운때 물만치 사람에게 차키지는것도 별로 업슬것입니다 물세게가 그립읍니다 그럼으로 최근물에 관한 새미는 뉴스를 두세가지 이야기하겟습니다 단란한 가정의 화제도 되며 또 다른의미에 잇서서는 상당한흥미를 불어내는것입니다

(가)물이집을태워

불이나면 곳물푸로 불을테여씁니다 물을 부으면 불이 써집니다 그런데 만일물이 집을 태웟다고 하면 그런거짓말이 어데잇느냐고 여러분은 항의할것입니다마는 최근 미국 어느촌에서는 이런괴적이 생겻다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즉 그집은 빈집으로 사람의 긔척이란전연업는집에서 불이낫습니다 그러타고하야 방화한 흔적도 전연업습니다 경찰당국에서는 발화원인을 발견하려고 비상한고심을 하얏습니다마는 사건은천점 알수업서젓습니다 그러다가 어떤예민한 형사가 필경은 그원인을 발견하얏습니다 그런데 그발화의 원인이라는것이 물그자신이엇습니다 그러나 물은 마치 풀무와 석냥을 동시에 지니고 잇는것가티도 생각이됩니다 실상이집아페 물담저잇는 한개의병을 형사가발견하얏든것입니다 이 물병이바로 방화범인이엇든 것입니다 그원인을 캐어보면 그지방은특히 긔후가 더운 곳이엇슴으로 나려쏘는강렬한 해빗이 물담긴 병에도 나리쏘엿습니다 이러케 광선을 바든 둥근병은 자연히 철(凸)렌즈와가튼 작용을하야 초점(焦點)을 맨들어낸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공교히 그집안속에서도 가장타기조흔 부분에 닷게되엇든것입니다 이러케되어발화가 된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사건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수업습니다 이와가튼 사건이 구라파에도 잇섯습니다 즉 어떤 노인이 방안의자에 안저서 신문을 보다가 총에마저 죽엇습니다 그러나 아모도 그방에 드러간 형적도업고 자살한것은 전연 아닙니다 그런데 엽책상우에 물담근병이 노혀 잇섯습니다 즉 창으로부터 드러오는강렬한 일광이 우연히 이병에 투사되어 려와가튼 렌즈의 작용으로 초점을 맨들어 그것이 공교스러히여페 세워잇는 탄환을 재여노흔총의 발화장치 부분에 떠러지기때문에 총이 제절로 발포가되어 그러한 참극을 일으킨것입니다

(나)어름업시차게!

어름도 쓰지안코 또전긔랭동고(冷凍庫)가튼것도 사용하지 안코 항상음료수를 찬채해둘수 잇는 간단한 방법이최근안출되엿습니다 차게한물을 병에너코 그주위에 압지와가티다공질(多孔質)의 조히를감고 그병을다시 상자또는 사긔로된그릇에너코 약간의 물을부어두되 이물이 압지에 침유되게합니다 이러케할때에 압지에 침유한 물은 긔후가 더운기때문에 쉬임업시 늘증발하게되는데 이러케 물이 압지로부터 증발할즈음에 물리학적원측에 딸하 병속에잇는 물이품고잇는 열을 빼아서내게 됨으로 그결과 병속의 물은별로 어름이나 전긔내동고 가튼것을 사용하지안하도 자연히차고 주위에잇는 공긔의온도보다 화씨三十도 쯤은 저온으로 잇슬수잇는 것입니다

여름, 가정에서의 청량제제조법 【二】

밀크세키、아이스티、별식화채등

▲밀크세키

이것을 맨들라면 그릇에 게란, 설탕, 우유가튼것을담고 잘 석근후 잘게깨트린 어름과 향료를 가미합니다 향료로는 와니라정(精) 두세방울을치고 저으면 밀크세키가됩니다 밀크세키 열사람분의재료라면 계란두개, 우유한홉, 어름四十돈중, 설탕열돈중, 와니라정 한두방울입니다

▲아이스티

아이스테이는 물을 팔팔끌이다가 그속에홍차와 설탕과를너코 一二三분동안놀인후 속히바처서 시킵니다 그러고 곱보에 어름을 반쯤 너코 우에 바친홍차를 석그면 됩니다

▲맥차、현미차、콩차

맥차는 보통 겉보리를 그대로 복근것을 물에 살여바처 식혀서 그대로 먹거나 어름을너허서 먹어도 조흡니다 여름철에 더욱이 먹음만한것 입니다

현미차도 맥차와 달라서 자극성의 성분을 지니지 안한기때문에 아이와병자의 음료로는 적당한것입니다 또가장손쉽고 경제적임으로 만히쓰입니다 또현미를 보리와가티 복가서도쓸수잇습니다

콩차는 검은콩을 복가서 맥차와가티 살여냅니다 이것은향기롭고 또자양분을지니고 잇슴으로 영양이되며 여름음료로매우 조흡니다

▲크라렛트폰치

(재료분은 포도주 중술가락으로 하나 레몬 십분지 한개 여름귤 십분지한개 설탕 세돈중 물) 설탕을 물에풀고 그물에 귤과 레몬껍질만을 열게 벳긴것을 담거노코(十이분에 한개쯤의껍질이면 됩니다)붉은포도주 레몬 귤물을합처서 한번에 못한 수건으로 바칩니다 이것으로 곱보에담고 레몬을 열게 둥글게저민것 한점을 띄웁니다

▲아메리칸폰치

(물한홉, 레몬물十분지한개, 어름, 귤十분지한개, 설당세돈, 색란데적은숫가락으로한개, 민트(생박하섭질=업서도조흡니다、외껍질조금) 물속에 레몬, 귤껍질을 열게벳겨 잠시담거노코향긔가 물에올마진때쯤 집어낸후 외껍질을너코 다우에 민트를너흡니다 여긔다가 또레몬과귤물을 적당하게합처가지고 색란데(다)를 조금타서 설당을가미하야 수건에바처 어름덩은 곱보에부어서마시도록합니다

▲워티메론아이스

(수박四〇돈, 설당여섯돈, 레몬물조금, 어름, 소금) 수박물을짜서 레몬물을 석고 설당을타서 아이스크림 제조기에담고 얼립니다 아이스크림보다 휩신덜얼려서 사지업시도마실만하게맨듭니다

▲포트와인사펫트

(물한홉 제라차 반조각, 설탕 여덟돈, 포트와인십분지일곱, 여름귤물한쪽에서만 낸것, 물六홉) 제라차를 설여서 풀어지게한후 설탕을 처서 물에식혀 귤물과 포토와인을가미합니다 이것을 아이스크림제조긔에너코 얼입니다

▲별식화채

(귤한개=물을짜면한홉은됩니다=물一홉六작、설탕한홉、귤껍질조금、비와(枇杷)큰것 세개、어름五十돈 과일은 복사도조흡니다 이상의분량은 오인분임

집바리스트再來

【橫濱二十八日發電通】 世界的拳鬪家「에뗌집바리스트」氏는 二十八日 橫濱入港의 龍田丸으로 寄港하얏다 氏는一旦上海에 들려서 月末에나 日本으로가리라한다

納涼畫報……其五

것칠것업는 벌판에 말달리기! 통쾌한맛은 물론이오 바람한점 업는날이라도 저드랑이 미테 스스로 생량(生涼)이됩니다

女性과醫學 (一)

高永煥

近代、資本主義的 物質文明의 傍若無人的 闖入으로因하야 오랫동안 昏睡中의 夢魔에서 비로소 눈을 뜨지안흘수업게된자가 아직 半世紀의期間을 넘지못하게된 東方「隱士國」의 住民인 우리로서 資本主義文明(!)의 沒廉恥하게 亂鬪하는 修羅場에서 碌碌한 生活이나마 하로ㅅ동안이라도 더 延長하려면 어느것 한가지도 必要치안흔것은 업슬것이다 即 하나에서 열까지 열에서 百,千,萬……가지의것이 모도 必要한것 뿐이다 于先 사람으로만 말하드라도 「아이쉬타인」가튼科學者「린드버」가튼 飛行家、「에디슨」가튼 發明家、「괴테」가튼文學者、「라파엘」가튼藝術人……等等이 모도 必要하며 그러 어떤極端的意味로 말한다면「카포네」가튼 惡漢까지도 或必要랄는지 모를것이다。

◇

그러나 現今우리에게 가장必要한것이라고는 두말할것도 업시 밥과옷을 첫 손가락에 꼽지 안흘수업거니와 그 다음으로는 敎育인것도 絶對的必要한것이 누구든지 否認하지 못할것이다 勿論 敎育이라고하면 一般的普通敎育의 普及이 急先務인것은 다시 두말할餘地도 업는바어니와 特히 專門敎育에 잇서서는 醫學敎育이 다른 무엇 보다도 緊且切하다고 생각된다 웨그러냐하면 우리社會에는 一般大衆의 衛生的觀念이 놀랄만하게 缺乏되지못한 結果로 날로은 當치안는 各種의 疾病때문에 苦痛하는사람이 非常히 만흠을 만아니라 딸라서 그死亡率에잇어서도 全世界中에서 겨우南米의 智利國을 내노코 亞細亞大陸에서는 우리朝鮮이 斷然首位에잇는것이다 只今 一九二八年度의 死亡率을 瞥見하면 如左하다

	死亡者數	千人에對한比率
智利	一〇一、六六五	二三、七
朝鮮	四四七、九六六	二三、六
臺灣	九六、四八	二二、二
樺太	五、一四	二二、三

其他는略

內閣統計局編纂 昭和六年度 『列國國勢要覽』年照

◇

아무것도 世界에 자랑할만한것이업는 朝鮮에서 오직死亡率만은 斷然 拔倂의狀態에잇다 다가튼「사람」으로 태여나서남과가티 먹고입지못하고 배불으며 치위에떠는것만해도 적지안흔 혼苦痛이어늘 게다가 病苦까지 더밧게된다는것은 事實로 雪上加霜格의 重罰이아니고 무엇인가?『健全한身體에 健全한精神이잇다』는 古語는 아직도 그것이眞理아님을 反證할道理가 업는以上 非難한苦運逆境에 잇는우리로서는 모든것에對하야 반드시惡戰苦鬪할 義務와 責任이잇기때문에 첫재身體부터健全케하여야 할터이므로 醫學敎育이 무엇보다도 더急先務로 必要하다는것이다

◇

그런데 男性에게 醫學敎育을 베푸는 機關은 아조充分하다고 하지는 할수업스나 全朝鮮內에 四、五個所나잇다 그러나 女性에게 醫學敎育을 시키는機關으로는 女子醫學講習所以外에 다른것이 또잇다는것을 아직듯지 못하게된것이 적지아흔 遺憾이다 그러나 一般의衛生的 觀念이 아직 原始人의 狀態를버서나지못하엿다고 할수잇슬만큼 幼稚한 우리社會에서는 女性의醫學敎育도 男性의 그것에比하야 何等의 遜色이업시 有用하다고생각한다 아니어떤意味로는 一般의 衛生思想이 幼稚할수록 女性의醫學敎育이 男性의 그것보다도 一層더 有用하다고생각된다 웨그러냐하면 各家庭이 ―딸하서 各個人이― 잘衛生하야 一個의健全한 民族으로 되는데에는 그責任의半分 以上이 이一般의女性에게 잇는까닭이다

◇

그러나 女子라는것은 身體가 웬만치 發育된뒤에는 곳시집가서 子女나나코 살림이나잘하는 것이 그들의天生的 職分인以上 醫學과가튼 學術硏究가 可當이나한가 그것은마치개발에편자와가티 何等所用이 업는것이라고 反對할사람이 或잇슬는지도 모룰것이다 나는以수이와가튼 反對論者가 반드시 적지안흐리라는 獨斷的前提下에서 이못때를前進시키려고 한다

第三回全朝鮮男女學生作品展覽會

―開會期間―

九月廿一日부터廿七日까지

◇出品期限=九月十日

場所 東亞日報社三層樓上

―出品種目―

中等學生部=繪畫·習字·手藝品

初等學生部=繪畫·習字·手工品

規定

一、作品에는 每一個에 命題와、出品者의 住所氏名、在籍學校名(中等、初等의 別을 반드시 附記할일) 學年別、年齡、男女別을 作品裏面에 明記할것、此의 明記가업스면 考選에너치아니함

一、出品作에는 반드시 在籍學校擔任先生의 認證을要함

一、出品作을 賣買하는이는 價格을 標記할것

一、出品作은 額緣에건 繪畫、表裝한習字 手藝手工品에限하야 返還하되 送料는 本社에서 負擔함 右外에는 返還料의 添附가잇드라도 一切應치아니함

一、出品物은 開會期日前到着하도록 보내되 外封에 반드시 「學生作品展覽會出品」이라고 朱書할것

等別

一等 六人
二等 十二人
三等 十八人
選外佳作 若干人

(賞品은追後發表)

主催 東亞日報社

漢詩

移秧

茂亭 鄭萬朝 考選

一等 高陽郡崇仁面龍頭里一七一 李貞吉

秧針漸大稼成叢、移揷人忙四野中。十耦齊辭同出力、三農何好半成功。脛毛脫盡猶施水、手持[illegible]欲起風。[illegible]歌互答、前頭知有賜年豐。

二等 任實郡任實面二道 林基洙

田間決決晴流通、擧畔相隨細雨中。[illegible]如禽對語、人成行似[illegible]。[illegible]節界破交紛彩、水面[illegible]。[illegible]婦歸來多喜色、[illegible]驗年豐。

東萊 李鉉堅

[illegible]方盡力可希豐、秋來[illegible]。[illegible]功。[illegible]比隣[illegible]、[illegible]。[illegible]十分野色添春雨、[illegible]。[illegible]後[illegible]、[illegible]吃[illegible]夕照中。

開城 馬鎬亨

[illegible]時節雨報年豐、準備移秧一例同。[illegible]水深淺、分[illegible]。[illegible]不如[illegible]頭紅。[illegible]人皆守古風。[illegible]

選外佳作 東大門外 城東老農

[illegible]

二等 住所未詳 無是翁

[illegible]

第二回全朝鮮男女夏期音樂講習

期間 八月二日午前九時부터十日間

場所 京城府外延禧專門學校

講師 蔡東鮮、지·시·스파이얼、崔虎永、金永煥、玄濟明

科目 피아노、바이올린、聲樂、樂理、合唱音樂指導法、演奏實試

科外、娛樂 庭球、籠球、排球、軟式野球、핑퐁、水泳、船遊等

會費 用會費參圓、食費七圓

主催 延禧專門學校音樂部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지상병원

방광염

【문】 十여일된 방광염이 오나 주사만으로도 치료할수잇슬까요 주사약으로 헤사지라민이 어떠합니까 그치료법을속히 가라처 주시옵소서(김생)

【답】 매일 방광염에대한 약을 복용하시고 주사를하시면 와치될수잇습니다「헤사지라민」이라는약을 주사하야도 조흡니다「헤사지라민」보다도「지혜라민」이라는주사를하야 보십시요 (京城帝大産婦人科敎室)

아기네 【一二五】

김동인작 리상범화

초저녁의별 (十)

이 놀라운 불경기에 고상회라고 그냥뻣뻣이 서잇을수가업엇다。현수의 민첩함이 아니고 두식이의 궁윤이 잇을지라도 고상회도 마츰내 이 불경기의 대세에는 안 쓰러들수가 업엇다。

더구나 가장 불경기에 영향을받기 쉬운 무역상이엇다。한번 기우러지기 시작한 뒤에는 그 그칠바를 몰랏다。

이전 돋아 오르든 해와같이 나날이 번창해 갈때는 현수의 민완은 더욱 고상회로 하여금 빨리 자라게 하엿지만 쓸어지기 시작한 뒤에는 현수로도 어찌도리가 업엇다。이러케 현수에게 친권을 맡기어 두엇든 주인은 상회가 차차 기우러지기 시작한 뒤에는 몸소 들어와서 상회의 일을 잡엇다。자기가 잡으면 좀 나아질듯하여서엿다。그러나 현수의 날카로운으로도 어찌하지 못한 이대세를 주인이 어찌할수가 업엇다。

가우려 지는 동안 二년이 지낫다。다넘어 지고도 겨우 겉으로만 세상을속인동안 一년이 지낫다。그러나 三년째는 마츰내 넘어지고야 말엇다。한때번창을 자랑하든 고상회도 드디어 파산을 한것이엇다。

파산을 하기 몇일전에 주인은 두 사무원을 조용히 불럿다。

「자네네도 아다싶이 나는 인제 파산이야。여러말 해서 무엇하리。내가 이지경만 안됫으면 자네들이 나갈때 상당한 사례라도 할라구 그랫지만 지금 이지경에서 어떠케 하겟나。자 이건 적은 돈이지만 아이런 주인의 마지막 선별인줄 알고 받아 주게。그러고 이뒤는 다른 좋은 주인을 맛나 잘 지나거나 그러치 않으면 스스로 상점을 내거나 해서 잘 살게。부디 나같이 되지는 말고……」

하면서 한사람의 앞에 천원식을 내여놓앗다。

고지식하고 직한 두식이는 주인이 내여 놓는 돈을 한참을 들여다 보다가 말없이 그돈을 받어 주머니에 넣엇다。주머니에 돈을 넣을때는 그의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이 한방울 떨어졋다。

역은 현수는 한참을 주인의 앞에 노은 돈을 들여다 보다가 얼굴에 빙긋이 미소를 띄엇다。

「고맙습니다。이런 지경에 이르셔서까지 우리생각을 해주시니 황공해서 드릴 말슴이 업습니다。그러나 저는 어드룰 못받겟습니다。이 돈이 만약 주인님께서 영업이 흥하실때 같으면 오히려 적다고 나므렝까지 하겟습니다만 이런 지경에 게시면서 주시는 돈을 그것도 적지않은 돈을 어떠케 받겟습니까?자 도로 받아 주십시오」

「뭣군。뭣군이 그러케 말하니깐 더부끄럽네。아모말 말고받아 주게。자네비 신세로 말하면 참부끄러운 본이지만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저 못받겟습니다。그래 입은 은혜만해도 갚을길이 없는데 이것을 어떠케 받겟습니까。그냥 두세서 무엇에던 쓰십시오」

「어서 받게。부끄러운 돈일세」

현수는 그냥 못받겟다 하엿다。고주사는 그냥 받으라하엿다。한참 서로 이러케 밀적에 고지식한 두식이가 말을꺼엇다。

「리군。넘감도 그만치 그래 시는데 그만 받어 두게。우리가 그새 큰 二十년동안이나 여기서 일을 하는데 영감이에 아 그것만 주시고싶겟나?할수 없이 적은 돈이라도 주신다는건 안받으면 외려 영감께서 미안하시지 않겟나!아모 말말고 받게」

못받겟노라고 밀고잇든 현수는 뒤끗 두식이를 보앗다。그러고는 다시는 못받겟다는 말도 받겟다는 말도 없이 잠잠히 여 버렸다。

이튿날부터 이 두사람은 벌서 고상회의 사무원이 아니엇다。

고상회는 몇일뒤에 마츰내파산의 선고를 받엇다。

ClibPDF - www.fastio.com

産業

鹽油肥問題再論 (五)

朴炯壽

四、販賣組合解消 今後鹽油肥製造業者의利害關係

[illegible]

時代性과商品價値 商工業과美術

一、絶對性(主觀的)——統一、調和——本來의生命、自然
二、相對性(客觀的)——解剖、認識、知識——(科學)
三、科學(純正科學、自然科學——天文學、物理學) (應用科學——化學、物理化學等)
四、應用科學——機械——機械的産業經營、機械的經濟組織、機械的社會制度
五、機械的法則에依한方法、組織、經營
六、商業——政治

法則

販賣

勞働者

[illegible]

安邊衛益面 滿洲粟消費激增

◇破滅相의一象徵

【신고산】 [illegible]

元作엔雨量不足 代播에는過多

【안개】 [illegible]

吉州商務役員會

[illegible]

被害組合員 畢竟告訴提起

警察은帳簿押收코嚴重取調

明治農會藥品詐欺事件

【함주】 기보한바 함주명치농회(咸州明治農會) [illegible]

沙里院에 穀物商總會

【사리원】 황해도 사리원곡물상조합(沙里院穀物商組合)에서 [illegible]

長湍各種品評 賞品授與式擧行

【장단】 경기도장단군농회(長湍郡農會)에서는 지난二十五일 오후一시경에 동군청회의실에서 [illegible]

洪城郡에서 女子勤勞稧組織

【홍성】 충남홍성군(忠南洪城郡)에서는 지난七월에 전군각면에부녀(婦女)근로계(勤勞稧)를 조직하려는 [illegible]

昌原에旱魃 雜穀을代播

【창원】 경남 창원군(昌原郡) [illegible]

進永에 祈雨祭

【진영】 경남진영지방은 [illegible]

副業品時勢

◇朝鮮副業協會調◇ (七月廿五日標準)

以下京城標準

◎蔬菜類

品名	單位	價格
무	一貫	[illegible]
고구마	同	[illegible]
赤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胡瓜	十本	[illegible]
가지	十個	[illegible]
호박	一貫	[illegible]
白瓜	十個	[illegible]
冬瓜	一貫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생강	同	[illegible]
양파	同	[illegible]
朝鮮白菜	十把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西瓜	同	[illegible]
쑥갓	一貫	[illegible]
시금추	同	[illegible]
양배채	同	[illegible]

以下關門標準

(七月二十五日)

品名	單位	價格
米穀	[illegible]	[illegible]
落花生	[illegible]	[illegible]
桃	[illegible]	[illegible]
梨	[illegible]	[illegible]
林檎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	[illegible]	[illegible]
양파	[illegible]	[illegible]
甘藷	[illegible]	[illegible]
茄子	[illegible]	[illegible]
胡瓜	[illegible]	[illegible]
西瓜	[illegible]	[illegible]
일년감	[illegible]	[illegible]

◎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머루	[illegible]	[illegible]
生鷄	[illegible]	[illegible]
鷄卵	[illegible]	[illegible]
마늘	[illegible]	[illegible]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참외	[illegible]	[illegible]
수박	[illegible]	[illegible]
자두	[illegible]	[illegible]
살구	[illegible]	[illegible]
복숭아	[illegible]	[illegible]
배	[illegible]	[illegible]

◎川魚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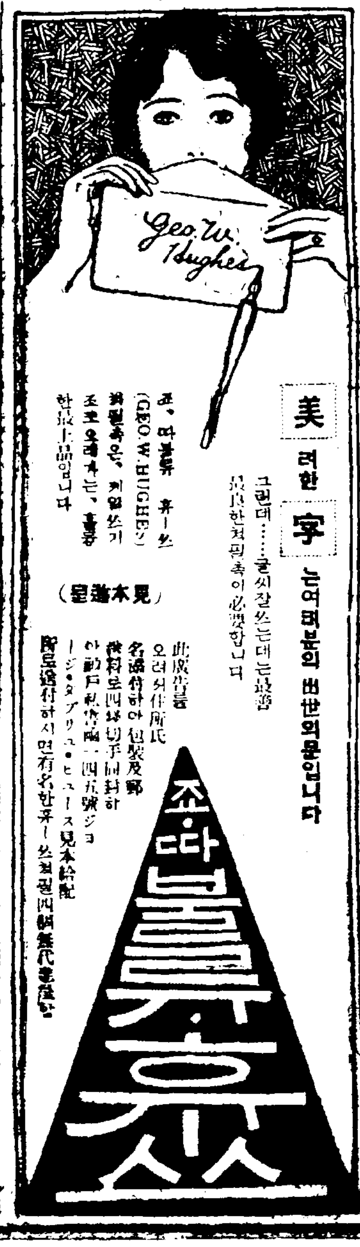
品名	單位	價格
뱀장어	[illegible]	[illegible]
鯉	[illegible]	[illegible]
鮒	[illegible]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牛	[illegible]	[illegible]
豚	[illegible]	[illegible]
鷄	[illegible]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蜂蜜	[illegible]	[illegible]
藁繩	[illegible]	[illegible]
叭	[illegible]	[illegible]
莚	[illegible]	[illegible]



東亞日報社平壤支局
平壤府竹典里壹九五番地
電話 九〇七 振替口座京城四八六壹番

第三回水泳講習會 參加申請은明日限

朝鮮水上競技協會主催로 來月二日부터十日間

조선수상경기협회(朝鮮水上競技協會) 주최와 본사후원의 제三회 수영강습회(第三回水泳講習會)는 조선수상경기협회에서 ... 래월 二일부터 十일간 원산송도원(元山松濤園)에서 개최하기로 되엇는데 ... 신청은 명일까지 이니 ... 바란다고 한다

揮發油大爆發

八백十一관이 폭발되어 慶北迎日郡의 大火

지난二十九일오후八시五十五분 경북영일군형산면송도동(迎日郡兄山面松島洞) 형산강치수사무소 휘발유격납고에서 휘발유가 폭발되어 격납고한채와 휘발유 八백四十一관이 소실되고 동十시三十분경에 진화되엇는데 이부 집치주가 납으로 뗴다가 휘발유에 이화한것인데 손해는 건물 약五十원 휘발유 一천五백 八十원이다 이보고에의하야 경무국 안동(安藤)기사는 인화물(引火物)격납에대한 결함이잇는듯 하다하야 현장을조사하려 二十六일밤 차로 경성을출발하야 현장으로 향하얏다 원인은 격납고안에 저장한휘발유가 통에서새는것을 ... 화상하얏다

實費診療 [한강]

... 前中央 ... 無料診療 ...

放鶴亭附近 溺死者續出

[시흥] 경성비행장(京城飛行場) 아페이는 한강지류에는 방학정(放鶴亭)이라는 곳이 잇는 수석이 상당한데 은근하 근동이 부면신길리(北面新吉里)와 영등포에서까지 ... 바란다고 한다

脅迫狀作亂으로 懲役十個月에

군부방면에 협박장발송 大邱法院에서判決

[대구] 평양비행대 진해요항 부등 각처에 협박장을보내이엇든 박장자라는사건의 ... 지난 ... 대구지방법원에서 ... 위반의 병합죄로 징역十개월의 판결언도가 잇섯다

江陵署에서 麻雀團取締

[강릉] 요사이 강릉에서는마작도박이 성행되어 일반식자계급에서는 배우우려하여 오든중 지난二十七일 강릉경찰서에서는 소위신사마작도박단 ...

本町署管內의 衛生聯合會

위생시설을완비하야 전염병발생 ...

殘兵團의現勢

◇豪雨로雙方相支中

天氣豫報

그날그날

라디오

大邱府外龍淵寺서 銅製佛像發掘

一천三백 여년전것으로 考古學上貴重資料

【대구】 경북달성군 옥포면반리의 용연사(龍淵寺) 八백七十번지 ... 대구서에 계출하야 도를거처 총독부에 알리엇다는바 이방면에서 과식중이든 경남진주(晋州)군내의 승려서상천(徐相天)이가 지난 ... 불상(佛像)을 발견하얏다한다 ... 고고학상귀중한 ... 고르다가 여섯자기 자이라한다

第三回水泳講習會

八月二日부터十日間 元山松濤園에서

申請期今月末日 外지延期本社庶務部에서도接收

◇講習會의規定

一、申請 京城鍾路一丁目朝鮮水上競技協會內의 朝鮮體育會로(電光五七八)

一、會期 八月二日(火)부터 十一日(木)까지(十日間)

一、場所 元山松濤園

一、入會費 一圓但過去講習會員은免除 이것은協會의入會費에充當함

一、講習費 一圓(申請當時에添付함을要함)

一、汽車賃割引 普通割引(京城元山間) 割引한往復賃金普通四圓九十錢 學生四圓二十錢 但學生은割引證을要함

◇野營生活規定

一、自炊費概算 一人十日

一、野營市諸金

生活希望者는 講習會申請과同時에 食費六圓을添付할것

一、携帶物品 【必携品】海水浴服、담요、벼개、숫가락、칼、모기발、文房具、스웨타ー【參考品】趣味書籍、樂器、其他娛樂道具

主催 朝鮮水上競技協會

後援 東亞日報社

스ー뉴ー 올림픽

누루미出場 正式으로拒否

權金兩君의奮鬪 一層期待가되는中

【로스앤젤리스廿八日發電通】世界長距離界의 巨人필랜드 의 누루미選手가 職業選手로서 올림픽大會出場을 拒否될지 아닐지는 大會를目前에 두고重大問題化되여잇섯는데 廿八日에 열린國際아마추어 競技聯盟 委員會는누루미의 出場을正式 으로拒否하얏다 이로因하야 日本은 마라손의 優勝도有望하게 되고 權泰夏 金恩培兩君의 奮鬪가一層더期待된다

마라손三勇士 應援方法決定

【로스앤젤리스廿八日電通】마라손三勇士津田、權、金三君應援方法에 對하야 在留日本人이協議한結果 全코ー스七個所의 컨트롤 스테이손에 日本靑年을配하야달하가면서選手에게食料를與하고 小學生 一千餘 其他를沿道諸處에 配置하야 旗를흔들면서 應援하기로 되엇다

定期올림픽 獨逸서開催

【로스앤젤리스廿八日發電通】廿八日의 國際올림픽委員會 에서 一九三六年第四回 冬期올림픽大會도 獨逸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다

日本選手好調

【로스앤젤리스 廿八日發電通】本日練習으로 大島鎌吉君은 三段跳에 十四메돌七九一을跳하고 長尾君은鐵槍投에五十메돌三〇의成績을示하야漸漸好調로되어간다고한다

올림픽放送 明瞭히들려

【東京廿日發電通】 遞信省의올림픽大會를 數日後에두고 日本選手들의 소리를 電波에실리어 日本에傳하는 올림픽放送의 第一回는 廿九日午後零時半부터 三十分에互하야 米國앤세시트 AK와의間에 行하얏다 AK에서는 北村技師長以下全員 愛宕山放送局의 調制室에 集合하야 正午頃부터 待役하얏다 午後零時廿九分 먼저 메라아나운서의 國內放送後 松內아나운서의 소리가 分明하게 百퍼ー센트의明瞭로 스피카를울렷다 다음派遣選手團長平沼氏가 元氣잇는 소리로『日本軍은 차용하기前에 敵을 壓하고잇습니다』라고述하고 이어서 名譽主事郷隆氏가『選手一同은 一人도알는사람은 업습니다 競技結果를 기다려주시요』라고述하고 다음陸上監督山本忠興博士가『陸上選手一同은 非常한好調로 短距離吉岡君은 當地에서 評判이조타 又한버의 長尾君도 好記錄을 내엇다』고 紹介하얏는데 이때부터 소리는 多少明瞭를 缺하아왓다 다음 水上競技監督 田畑政治氏가나타나『水泳으로 優勝이 確實한것은 千五百과 四百과 색래스트이다 색과百은 非常한接戰이 演出되리라생각하는데 宮崎君은 米國에와서 五九秒와五九秒二를 내고잇슴으로 이것도優勝할希望은 充分히잇다 바라나와 쉬왈츠도 最近컨되슌이조치못함 으로이二人은問題가 업다고생각한다 米國은이미 各種目에 거의希望을버리고 現在는 八百릴레이만은꼭 어떠케하여보려고 一種目에 全力을드려서 日本에 當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日本팀現在의 컨되슌으로는 宮崎를너으나 河石을너으나 八分二十六秒의確信이 잇슴으로 勝利가期待됩니다』고述하고다음女子主將松澤初穗孃의 緊張한소리로『前後에서의後援으로 安心全力을 싸우겟습니다』 라고人事하고 보트體操拳闘홋케이 馬術藝術 代表抱負를述하야 大體豫期의 成績을擧하얏다

水球림大敗 練習試合에서

【로스앤젤리스廿八日發電通】日本水球림은 廿八日午前十一時부터 올림픽풀에서 헝거리팀과 一時間동안 練習試合을行하얏는데 二五對二로 大敗하얏다 헝거리팀은 獨逸림과가티 優勝候補의 一이다

法專校友會 庭球部遠征

明朝七時에出發 南朝鮮各地로

昨年西北朝鮮을 遠征하야全勝의 記錄을 가지고 朝鮮體育協會主催 全朝鮮庭球大會에 優勝을하야斯界에名聲의嘖嘖하든 法專校友會 庭球部에서는 年年夏期를利用하야 南朝鮮各地를遠征하고저一行十四人이 明三十一日午前七時四十分 京城驛發南行하리라는데 試合豫定地와 隊員氏名은 다음과갓다한다

試合豫定地 大田、大邱、釜山、東萊、木浦、外湖南數個處(未確定)

隊員氏名 매니저 ... 主將 ... (趙永濟 崔昌燮 邊基準 全悅 金鴻濤 成永利 李根植 趙永濟) (崔昌燮 趙世新 嚴國 白俊煥 朴容哲 金德柱)

協實追攻不及 對平籠籠球戰

27―19로 失敗

【平壤】平壤의來訪한協成實業團은 지난二十八日 下午九時分부터 最終의『게임』으로 崇專講堂에서 最近의組織된 平壤籠球團과 朴元主、車在鎬 兩氏審判으로對戰하얏다

【前半】開戰劈頭부터 猛烈한 攻守戰으로 兩方이勝負하다가 三分半에F R車君의『패스』로 天開히 功을奏하나 協實의閔君의投로 이에應하나 마치兩君의獨舞臺인듯한 活躍을뵈이엇다 十分부터 다시平籠크게氣勢를 올니여 漸次不利하야 得點하는데反하야 協實겨우 小强을保持함에끚음으로16―11로『리드』를當하엿다

【後半】亦是協實不運타가四分에 閔君의自由投와長投로 追及을 開始하야 激戰을繼續하엿스나 連日連戰에 疲勞한탓인지 戰勢不進하야 後半에도11―8로『리드』를當하야 結局27―19로 敗北하니 來征四合戰에二勝二敗의平凡한成績을거두다 (게임四十分間)

長篇小說 흙

春園作 青田畵

(흘재권)【二三】

표적이엇다。 숭은 일어나서 밥상을 받아 놓고 서울서 보던 몸 피둥피둥 하고 머리 반드르한 마님네를 연상하엿다。 그네들에게는 일생에 하인들에게 잔소리 하는 고생밖에 노동이라는 것은 업엇고、 그리고도 고량진미에 영양은 남고도 남아서、 먹은것이 빗어다 흡수될 수가 업어서、 고록고록 소화불량이 되어 보약잡시오、 약물잡시오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엇다。

밥상! 숭의 밥상은 몇 백년이나 한갑이 대대로 물려오는 팔모반이엇다。 본래는 칠 하엿던 것이 벗어지는 동안이 반쇠기、 벗어지는 한편으로 다시 때와 몬지로 칠하기 시작하야 완전히 칠해지기까지 반쇠기 가장자리를 두른 여듧개엇을장식 언커리중에는 겨오 세개가 남앗을 뿐이다。 이 소반은 그래도 한갑의 집이 옛날에는 컴잡게 살던 집인 것을 표시하는 대표적 유물이다。 한갑 어머니는 지금도 자긔 집 가장의 밥상이、 비록 은 반상、 고기 반찬은 못 오를망정 모반(네모난 소반)이 아니오 팔모반인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잇다 이 소반은 한갑 할머니가 한갑의 아버지에게 시집올 때에、 그의 조부의 밥상이 되엇던 것이엇다。 그 전에는 몃대를 전하여 왓는지 모르지마는 그 ―

모양도 점잔아서 요새ㅅ것 으로 적고 되바라지지를 아니하엿다。 숭은 이 비록 낡아진 것이나마 그 후덕스럽고 여유잇는 바탕과 모양을 가진 소반을 보고 옛날 조선 사람과의 정신과 오늘날 조선 사람과의 정신을 비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엿다。 그러지마는 그 그릇에 담은 밥은 볼면 날아날 쪼호좁쌀이오 반찬이라고는 냉수에 간장 을치고 파한줄기를 썰어서 띄운것 한그릇 (이것이 유긔컵에 서 기워온 고뿔 대접에 담은것이다) 그리고는 호박 닢 줄거리의 껍질과 실을 벗기고 숭숭 썰어서 된장에 섞어서 호박 사귀에 담아서 화로人불에、 글 세 굽는달까 찌달까 한찌개 한 그릇뿐이엇다。 이호박닢 찌개 는 두가지 이유가 잇엇다 하나 는 찌개를 쌀그릇이 없는것、 또 하나는 호박닢에 찌노라면 된 장에 잇던 구데기가 뜨거운 것 을 피해서 왼사귀 가장자리로 기어나기 때문에 구데기 죄다 집어버릴수 잇는 편리가 잇는 것이엇다。

조밥 한 그릇(듬뿍 꾹꾹 눌러 담은)、 냉국 한 그릇、 늠실늠실 넘게 한 그릇、 그리고 구데기 없는 된장 호박닢찌개 한 그릇 ―이것이 숭이가 농촌에 또 와온 첫밥상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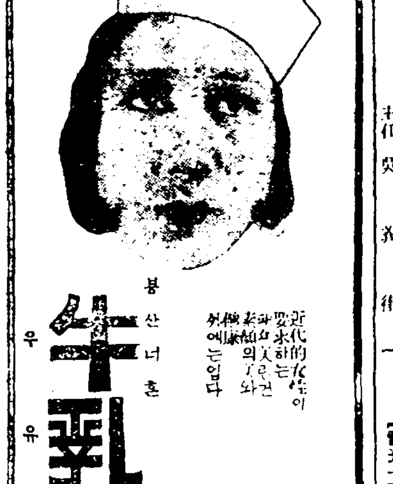
후에 한갑의 조부、 그 후에는 한갑의 아버지、 그리고는 한갑의 밥상이 된 것이엇다。 이 밥 상은 이 집 가장 이외에는 받지못하는 거룩한 가보엿다。 이 상에 밥을 주는 것이 숭에게대 한더할수없는 큰 대접이엇다。 한갑어머니는 속으로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면서도 그 것을 말 로 표하지는 아니하엿다。 그는 조선의 어머니의 자제력이 잇엇다。 그러나 숭을 위하야 밥상을 차려 놓고 나오는 한갑 어머니의 모양은 참아 바로 볼수 없도록 애처로웟다。 나이는 아직 六十 밋이 되는데 아주 늙어서 ...

土金 石金 高價買入 株式會社 京城德力 京城明治町 平壤出張所 平壤南門通二丁目

商才잇는 販賣員募集 國際ライター 資本金十円內外 收入多大 希望者는一度御來店하시오 發賣元 大阪市東區平野町三丁目 今岡本店營業部 電話(東)一九〇一・一九〇六

滿天下難病患者의게 激告함 多年間經驗한研究로 死症에서헤매이는 人士는 특효의 … 藥草灸 大本 中本 小本 … 朝鮮總販賣所

蹴球大學 西部討伐 第一劇場 優美館 朝鮮劇場 團成社 아메리카의悲劇 자랑에쫏치는아버지 피로잣는길삼 한때에온마누라


牛乳石鹸

콜럼비아朝鮮레코ー드 八月新譜
玄濟明氏 金仙草孃 蔡奎燁氏
테너ー 네말을傳해다오 獨唱 玄濟明
漫談 양양범버굿 / 말탄놈도껫덕 소탄놈도껫덕 李景波
流行小曲 青春 / 端午노래 金仙草
同 타는이마음 / 가는靑春 蔡奎燁
同 비오는밤 / 놀녀주서요 그마음 金仙草
同 自轉車 / 아 … 姜石燕
劇 不幸한詩人 / 거렐長根夢
스케취 結婚戰線 異常업다 藝術座一行
딴스 바람쟁이 電車車掌
獨唱 오양간송아지 / 可憐한내음마 玄濟明
春香傳 御史와春香
西道雜歌 愁心歌 / 역금愁心歌 金玉葉
俳優 妓生點考 / 新延마지 吳太石
同 방아타령 / 양산도 / 漢江水打鈴 / 京畿宮打鈴 林방울
歌詞 春眠曲 / 平調
콜럼비아管絃樂團 作奏
京城府長谷川町 콜럼비아蓄音器株式會社 Columbia

全鮮藥店販賣 淋疾特効新藥 ゴノZO 二円・四円 十円 二十円(病院用) 東亞日報京城販賣部 電光七三〇

最近關稅戰 各國苦惱相

申泰翊 (八)

身病으로 數日 中斷되엇든것을 謝하며 아즉도 未了된 外國에 簡單한 紀文으로써 終結을 지으라고 한다

▲國別關稅編

佛國 이에對하야는前回에 一部分 쓴것이 잇스나 便宜上 다시 처음부터 쓰랴고한다 이佛國은 오늘에잇서 世界의金保有量이 만키로는 米國의다음가는 것은 다시말할 必要가 업다 法貨가 安日로부터 爲替低落國으로부터 나라이다 即世界金의 二割五分가량을 가지고잇다 이처럼 金保有量이 世界의 第二位를占한 나라인만큼 世界的經濟恐慌의 바람도 比較的부되치이 적엇다 그러나 各國이 모다不景氣에부 댓김을當하야 關稅의 障壁을 노피고잇는데 佛國만 혼자 關稅의 障壁을 노피지안코 그대로잇는다면 自國의金保有量이 아모리 만타고할지라도 金流出로 因하야 그金保有量의減少를 發치 안을수가업게된다 이中에도 佛國으로서 가장 威脅을 밧는것은 英國의 保護貿易主義의 佛國은 一般 關稅引上으로생기는 影響이다 그래서 昨年中의 佛國關稅를보면 四月二十一日 綿絲布의 從價二割이 生産中의 二十四日에 올렷스며 十一月十四日으로부터 爲替低落國으로부터 輸入品에 對하야 從價一割五分의 爲替補償附加稅를 課하엿다 (一月十三日) 玩具類의 輸入配定을 發表하엿다 (二月二十一日) 고무靴關稅를 한번에 四倍를 올리엇다 (三月二十一日) 日本品과 海峽殖民地品에對하야 從價一割 五分의 爲替補償附加稅를 課하엿다 今年上半期에는 어떠하엿는가 昨年中 佛國關稅引上으로의 配定을 決定公布하엿다 以下는 十二月八日 鑵詰魚類의 陶器의 改正을하엿다 十一月廿九日에 革靴 外에 一割의 特別追加稅를課하얏다 從價一割五分、加奈陀에對하야 印度、蘭領東印度、英國、英領領殖民地、丁抹、瑞典等에 對한 爲替補償附加稅를 課하고 其外 低廉한商品에 對하야 威脅을 밧는 輸出國은 그러나 國內에 對하야 商品의 購入을 制限하야 不況의 佛國의 物價下落의 影響을 이런 差別的輸入은 그나라가 直接 覺悟하는 商品은 그나라가 認定하는 世界不況으로 輸入增加를 防止하는 바이다

朝鮮米問題의趨向

差別待遇는 絶對로안한다

渡東委員에向하야 齋藤首相言明

◇渡東委員打電 朝鮮米擁護의渡東委員은 二十六日午前 齋藤首相과會見하고 朝鮮米에對한 差別的待遇를할수업는것은 勿論 이런問題를 政府의 機關等에서 論議한다는것은 半島의民心에 重大한 影響이잇다고말하얏다 이에對하야首相은 이런일은 絶對로안하게할것임으로安心하라고 言明하얏다 그리고 首相官邸에서 柴田內閣書記官長과도 面會한뒤 國策研究俱樂部側補安達氏를 訪問會談하고 午後는 農林省에서 荷見計劃課長과 懇談하야 意見을交換하얏다

露骨을避하는 漠然한提案을念慮

目下農林省態度

八月의臨時議會에 露骨한朝鮮米取締法令이 出치아니할것은 事實인듯하나 언제本年의 米收의狀態並히米價의關係로는 農林省으로서 今冬의通常議會를 기다리지안코 日本農村救濟의 趣旨로보아 언제外地 特히朝鮮米의移入制限을行할는지모르게 될形便이다 勿論緊急勅令에依하는것은업슬는지모른다 그러나 〈農林省은 米價의 動向如何에依하야 適宜한 處置를取함을得함〉이라는意味深長한 또漠然한 可恐한 決令의提案이 出할는지 모르다는情報가잇다 朝鮮米로서는 安心할수는업다 云云이라고 某有力者는 말한다

朝鮮米의 移出地別量

大阪이首位이다

昭和六年中의 朝鮮米 移輸出高는 移出八百六十一萬四千四百十六石 輸出二千五百五十七石合計八百六十一萬六千九百七十三石으로서 此를 仕向地別로보면 如左하다 (單位石)

福岡	[illegible]
長崎	[illegible]
愛媛	[illegible]
山口	[illegible]
廣島	[illegible]
兵庫	[illegible]
大阪	[illegible]
京都	[illegible]
愛知	[illegible]
靜岡	[illegible]
神奈川	[illegible]
東京	[illegible]
北海道	[illegible]

請負制度 隨意契約

不遠決定되다

談合事件檢擧以來 請負制度의改善을 企圖하고잇든 總督府內務局에서는 會計法의 改正은 全般의關係가 잇는故로 簡單히 改正할수가 업는故로 會計法의 範圍內에서 運用에 加減할目的을 行하기로되엿다 即 일즉부터研究의結果인 隨意契約을 主로採用하기로 大體의方針을 決定하고 目下會計課에서 審議中인데 將來의工事는 隨意契約에 依함을 原則으로하고 入札制度를 特殊한境遇에 限하야 採用하기로 決定을볼터이다

日本의關稅를 다시徹底改正?

通常議會에提出하랴고準備中

時局對策을加味

日本關稅改正은 第六十二議會의 第一回幹事會를 열기로 決定하얏다 이번의 關稅改正의 目標는 알에와가튼諸點인데 貴族院의 附帶意見에는 關稅의 根本的審議를 하라는趣旨가 잇섯슴으로 大藏省에서는 關係各省과 議論한 合하야 될수잇스면 保護關稅의 趣旨를 徹底케할意向이라고한다 (一)從量稅에 對하야는 一律三割五分을 重課하얏든바 이것은 爲替低落에對한 應急策에 不過함으로 從量稅의 各品目에 吟味하야 다시올닐것이 必要하다는것과 그만큼 올닐必要가 업는것을 分別할 (二)産業保護의 目的으로 하는 前引上의品目에 對하야도 意見이잇고 또이밧게도 研究할것이 잇슴으로 此等을 各品目別로 審議할일 (三)各國의 關稅政策에 對한 對抗策과 『덤핑』對策의 意도 加케될일

臺灣米移出高

上旬十五萬餘石

【商通東京發電報】拓務省發表에依하면 七月上旬의 臺灣米移出高는 十五萬七千九十二石內 日本向在來種一萬二百七十石 蓬萊米十四萬三千九百三十石 外米二石 朝鮮向三千九百七十九石이다

日本下旬貿易

【東京二十日發電通】七月下旬의對外貿易 大藏省發表는 出超 一千九百六十二萬四千圓이요 其內譯은如左

輸出額	[illegible]
輸入額	[illegible]
差引出超	一九、[illegible]

米棉高의原因

【紐育廿九日發電通】二十九日의 米棉市場은 天候不良과綿布市場의 取引增大이라는報로 買氣를 刺戟하야 株式强調가생긴外部에 二乃至六포인트高로 出하얏다

鮮銀重役重任

色部野村兩氏

色部鮮銀理事並히野村監事는 來八月의總會에 任期滿了되어 改選하기로되엇는데 色部理事는 旣報와如히 重任으로確定되엿스나 不明이든 野村監事도重任하기로決定되엇다고한다

農村救濟 負債의整理

固定貸付資金化

【東京二十日發電報聯合】農林省의 農村應急對策中에서 남은問題는 産業組合의 固定貸付資金化와 農家負債整理 問題인데 固定貸付의 資金化에 對하야는 어떠되엿지든지 國家保障을要求하야 大藏省과 折衝하기로되고 一方負債整理에 對하야도臨時議會에 提案을要望하야 四圍의 情勢로 具體案을考究中인데 司法省에서 立案中의 小額債務調停法並히 小作調停으로서 負債整理를行하기로 決하고 成案을急速히하기로되엇다 그러고 右調停을 負債는 窮農救濟의 立場으로 千圓以下의것에限하야 市町村에 設置될農村更生委員會에서調停하야 負債額의切下를 行하고 調停이不成立될時는 小額債務調停法에附할意向이다

信託會社 年內設立

政務總監談

今井田政務總監은 二十九日午前十一時半 記者團과 會見하고 如左히말한다 農林省의 米穀統制案은 米穀特別會計法을 改正하야 買上資金을 五千萬圓增加하는 案에 臨時議會에 提出된 貌樣인故로 根本政策은 結局 通常議會에서 決定할것으로 생각한다 今日에는 도리어朝鮮의意見을 듣고잇는모양으로서 具體的案은 全然 豫想할수업다 臨時議會에 提出할 豫算案은 [illegible]

林財務局長이 東上中인데 此問題를 念慮하고잇다 故로 大信託會社設立은 速急히하는것이 아니요 農村만의 救濟를 目的으로하는것이아니요 都鄙를通하야 土木事業을起하야 勞銀의撒布를 行하는同時에 中小商工業救濟를 爲하야 低利資金을 融通하야 高利債의借換、償還延期等 利害關係가 相異한사람들이 協調가 必要하게되는故로 新低資融通의 三方法이 行하고 不得已한일이다 大信託設立은 不動産金融信託이 故로 그低資部은 約五千萬圓豫定이다 다만너무만흔 事業을起하는것은 사람을엇기가 困難한 것이다 그事業은 자못困難하다

非常時公債 發行額決定

廿九日閣議에서

【東京廿九日發電通】廿九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에 열고高橋藏相으로부터 農村中小商業者 救濟費는 一般會計와 切離하야 特別會計를 設定하고자하야 大藏省에서 研究中인데 事務的으로 보아 特別會計設定은 至難한故로 亦是本人一般會計에서 取扱하지안으면 안된다。此의 救濟에關한 財源全部는 公債에 依할밧게업다。그리되면 此公債發行은 于先今日의 非常狀態를 三個年間에 總收의 豫想으로 昭和九年度外지의 公債發行總額을法律에 依하야 決定하고 그年度割額은 政府에서 緊急에 應할수잇도록 彈力性을 가지게할수잇는 方法을 目標로研究中이엇는데 此公債發行에 對하야도 豫算을 作하기때문에 此點을 如何히하느냐 하는問題에 對하야 大藏省에서 研究中이다 그러나 어느便으로 되든지 非常時에 處하기爲하야 公債發行總額은 此臨時議會에 提出하고자한다 各省의 救濟事業豫算은 다 되엇는데 어느것이나 公債財源에 依하는것이잇는故로 또다시閣議에 諮하고저한다라고 述하고 公債發行額은 五省을 訪問하고 原案의 決定에 依하기로하고 小하기로되엇다고한다

民政黨 農村救濟

幹部會가成案

【東京二十九日發聯合】民政黨에서는 農村其他救濟案에 對하야 委員會를設하고 對策研究中이엇는데 드디어 各委員會案이 作成된故로 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本部에 委員會協議會를 開하고 委員長으로부터 報告하야 原案을可決하고 다시午後一時부터 幹部會를開하고 附議하고 同五時卅分에 散會하얏다 그原案은 幹部會에서 異議업시 可決된故로 卅日午前十時 秦田政務調査會長으로부터 若槻總裁에게 說明하야 承認을得하야 黨議로 決定한後에 近近山田總務、小山幹事長、添田政務調查長等이 黨을代表하야 政府를 訪問하고 原案의 實行을 迫하기로되엇다고한다

信託新設機運

中心은東京으로

諸人物意見交換

朝鮮의大信託新設의 大體의協議는 林財務局長의渡東과東京滯在中의 加藤鮮銀頭取 有賀殖銀頭取 荒井土信託社長과 關東銀行頭取 荒井信託協會長은 新信託會社新設機運對策을가지고 東京에 在中의 東拓 渡邊氏等 數人이 相議를 行하얏는데 例의荒井氏가 如何히 意見의交換이 되엿스며 그結果 觀測되고잇다 中心人物로 指目되는 韓相龍氏는 아직渡東의 意思가 업다 또한東京서도 오라는通知도밧지 아니하엿다 新會社에 對하야는 余로서는 새삼스럽게 意見을 말하고싶지안타 朝鮮에 必要한 機關인것은 確實하나 機運이 熟하면 會社는 되리라 하고 一面數日前 急速한 渡東說을 否認하고잇다

小商人의營業

京城府가調査

京城府勸業係에서는 月收五十圓以下의 商人의 業態別調査를 하고잇는데 그調查要項은 (一)町洞別分布調査 (二)季節에 依한 收入增減調查 (三)資本關係에 依하는 月收五十圓以下의 商人의 種別調査

日本中小商工 負債廿億圓

日本商議의調査

【東京二十九日發電報聯合】政府는 今回農村救濟와倂行하야 中小商工業者의救濟를 施行하려는데 際하야 商工省으로부터 今月初에 日本商工會議所에 依囑한바잇는데 此에依하야 이미調査가完了하야 全國의都市에 잇는 中小商工業者의 負債調査를 會議所에 到着한者는 五十一都市인데 總額 億六千七百四十三萬八千圓에 達한다 東京、大阪、京都、橫濱等大都市의分이 調査가 完了되지아니하엿스나 此等大都市를 包含하면 優히 二十億圓을 突破할것으로 觀測되고잇다

今日의市況

一九三二年七月三十日

株式(單位十錢)		
株別	後場止値	昨後場比較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期米(仁川單位錢)		
限別	前場止値	昨後場比較
先限	[illegible]	二低

正米(三等單位錢)		
地名	標準時値	昨日比較
京城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一〇低

商品(單位十錢)		
品目	後場止値	昨後場比較
綿絲(先)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時勢와市況

株式

相當한 伸氣

前場暴騰

昨後場에 比하야 東新은 十錢高의 七圓九十錢의 寄付가잇슨뒤 今朝에도 [illegible]

後場續騰

[illegible] 十錢寄後引不成▲東新 十七圓八十錢▲拓新五圓九十錢 [illegible] 寄付한뒤에도 伸氣가 不絶

朝取短期取引 / 東京現株前場 / 東京短期 / 朝取短期實買高 / 大阪長期取引 / 大阪短期取引 / 代引算定日步

[illegible]

繼續의騰勢로

一圓高를 突破하고 大阪三十錢上伸의 百四十一圓三十錢에 大引되엇다

政府의政策에 對한 失望이 업는만큼 緩和됨을 알하여서 目前品의 勢가 繼續된다 高價에는 反賣가 업되엿슴으로 安心買는 警戒하지만 東新百四十圓以上의 高價를 目標로삼고 一時的 [illegible]

尙自重의域內

消極方策安全

요새와가티 强弱材料가 모다 鮮明한것이업고 어때에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 大阪短期前場步調 / 大阪短期後場步調

[illegible]

東京公債市況

【東京二十日發電報聯合】[illegible]

朝取前場賣買

[illegible]

期米

頑强히 納會

前場强調

昨後場十九圓七十錢에 軟弱히 推移하엿든데 今朝는 [illegible] 大阪初付가 一圓四十一錢 下放으로 仁川人氣一轉하야 十九圓五十五錢에 低落 [illegible]

朝取期米 / 當限 / 中限 / 先限 / 釜山 / 群山 / 木浦 / 鎭南浦 / 大邱

[illegible]

後場休會

新甫納의豫想

四五十丁上納

[illegible]

大受米의因果

來月外지 發新

[illegible]

朝取期米各店倭合

[illegible]

新租의郡出廻

昨年보다十三日早

[illegible]

各地新甫氣配

[illegible]

當限受渡內容

[illegible]

京城延取

[illegible]

各地外 商狀

正米

京城無勢 / 仁川少落 / 南浦低落 / 大邱下落 / 釜山軟化

[illegible]

仁川正米時勢 / 京城正米時勢 / 地方米時勢 / 各地期米 / 各地賣買高 / 京城綿絲布時勢 / 仁川大豆時勢 / 大阪棉花 / 大阪綿糸 / 大阪砂糖 / 橫濱生絲 / 京城手形交換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日本金貨 / 滿洲各地商況 / 安東鈔引市況 / 海外經濟 / 對外爲替 / 海外砂糖

[illegible]